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해

---

주최 :  **논산시**

주관 :  **동암서원**

후원 :  **충청남도**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CONTENTS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해

<b>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b>	<b>05</b>
- 이배용(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b>2.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享祀禮) 비교연구</b>	<b>33</b>
- 한재훈(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b>3. 한국 서원 강학의 지식사적 가치</b>	<b>53</b>
-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b>4. 서원의 교류와 유식</b>	<b>87</b>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 이배용(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가치

## 이 배 용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1972)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를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이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유산이 오랜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류의 문화 및 자연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에 대해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여 이를 함께 보호하고자 “세계유산협약”을 1972년에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

- ✓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간다.
- ✓ 재난을 당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구를 통해 복구 작업에 기술력,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관광자원이 확대되어 방문객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제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 ✓ 보존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입력되어 미래를 향한 유산보존에 안정적 장치와 제도가 마련된다.
- ✓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이제 한국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편입됨으로써 역사 대대로 문화교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세계유산(유형)-

### ◆ 현황

세계유산 (유형)			
1	해인사 장경판전 (1995)	9	조선왕릉 (2009)
2	종묘 (1995)	10	하회와 양동마을 (2010)
3	석굴암, 불국사 (1995)	11	남한산성 (2014)
4	창덕궁 (1997)	12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5	수원 화성 (1997)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6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2000)	14	한국의 서원 (2019)
7	경주역사지구 (2000)	15	한국의 갯벌 (2021)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 ◆ 현황

인류무형문화유산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12	줄타기(2011)
2	판소리 (2003)	13	택견(2011)
3	강릉단오제 (2005)	14	한산모시짜기(2011)
4	처용무 (2009)	15	아리랑(2012)
5	강강술래 (2009)	16	김장문화(2013)
6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17	농악(2014)
7	남사당놀이 (2009)	18	줄다리기 (2015)
8	영산재 (2009)	19	제주해녀 (2016)
9	대목장 (2010)	20	씨름(2018.11월/남북공동)
10	매사냥(2010)/	21	연등회(2020)
11	가곡(2010)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한국) -세계기록유산-

### ◆ 현황

세계기록유산			
1	훈민정음 (1997)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2	조선왕조실록 (1997)	10	난중일기 (2013)
3	불조직지심체요절하권 (2001)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4	승정원일기 (2001)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
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6	조선왕조 의궤(2007)	14	조선왕조 어보, 어책 (2017)
7	동의보감 (2009)	15	국채보상운동 (2017)
8	일성록 (2011)	16	조선통신사 (2017 한일공동)

## 한국의 서원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 ❖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 이배용(2010~2012)  
2011년 4월 세계유산에 서원 등재 추진

##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 아제르바이잔 바쿠(2019. 7. 6)-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개최- 아제르바이잔 바쿠

##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최종보고-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Ⅲ에 해당되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 바로 기준(iii)에 해당되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것이다. 즉 조선시대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교육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던 완전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탁월성이 입증된 것이다.

## 세계유산 타당성에 대한 지지발언

최종적으로 한국서원의 등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코모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재타당성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여러 국가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대표가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게 하는 결정적인 지지발언을 하였다. “즉 서원으로 불리는 성리학 교육기관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의 보급과 지역화에 기여한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서원건축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꽃피도록 하였다.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목록상의 대표적인 성리학 유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명료하게 지지발언을 한 것이다.

## 한국 서원의 가치

1. 세계유산 자격 – 진정성, 완전성
  - ① 대원군 때 철폐되지 않은 서원
  - ②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
2. 사립학교 – 지역 사림들의 자발적 교육운동
3. 성리학유산 – 신유학 (주자학)
4. 자연과 조화 – 경관, 우아한 목조건축
5. 제향인물 – 공자가 아닌 지역에서 존경받는 학자
6. 인성교육 – 자기수양 우선, 도덕성 중심
7. 제향, 강학, 유식공간
8. 사액 - 국가가 공인, 장학금, 노비 지급
9. 관광자원 - 경제적 효과
10. 정신문화 회복

##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석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석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현황

	서원명	위치	설립년도	주 제향인물
1	소수서원	경북 영주	1543년	안 향 (회헌, 1243~1306)
2	남계서원	경남 함양	1552년	정여창 (일두, 1450~1504)
3	옥산서원	경북 경주	1572년	이언적 (회재, 1491~1553)
4	도산서원	경북 안동	1574년	이 황 (퇴계, 1501~1570)
5	필암서원	전남 장성	1590년	김인후 (하서, 1510~1560)
6	도동서원	경북 달성	1605년	김굉필 (한훤당, 1454~1504)
7	병산서원	경북 안동	1613년	류성룡 (서애, 1542~1607)
8	무성서원	전북 정읍	1615년	최치원 (고운, 857~미상)
9	돈암서원	충남 논산	1634년	김장생 (사계, 1548~1631)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주 제향인물 : 회헌 안향 (1243~1306)



소수서원 현판(명종어필)

##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주 제향인물 : 퇴계 이황(1501~1570)



도산서당



## 퇴계 이황 - 주리론(主理論)



퇴계 이황 영정  
(1501~1570)

- “나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기를 원한다. 모두가 착해지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것이다.”
- “누가 부(富)를 자랑하면 나는 인(仁)으로 내세울 것이고, 누가 벼슬이 높다고 자랑하면 나는 의(義)를 내세울 것이다.”

## 도산서원 추계 향사 초헌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2020. 10. 01)





서원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초헌관을 맡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에서  
첫 잔을 올리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屏山書院)



병산서원 복례문





병산서원 만대루

주 제향인물 : 서애 유성룡(1542~1607)



병산서원 입교당

## 징비록(懲毖錄)

서애 유성룡(1542~1607)



국보 132호

“지난 날을 반성하고 후에 근심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서애 선생이 임진왜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 들은 일들을 모두 모아서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을, 후손에게는 경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책.

<시경의 소비(小毖)편>

## 경주 양동마을 옥산서원(玉山書院)



주 제향인물 : 회재 이언적(1491~1553)



역락문(亦樂門)

##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

회재 이언적(1491~1553)



경주 옥산서원(유네스코 세계유산)

첫째, 집안 단속을 잘 해야 한다.

둘째, 세자, 후계자를 바르게 양성해야 한다.

셋째,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넷째, 인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천심, 항상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정치해라.

여섯째, 백성의 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곱째, 언론을 개방해야 한다.

여덟째, 사치와 욕심을 경계해라.

아홉째, 군정을 바르게 해라.

열째, 기미를 잘 살피야 한다.

회재 이언적(1539년 상소문, 중종)

##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주 제향인물 : 한훤당 김굉필(1454~1504)



도동서원 학자수(은행나무)



도동서원 환주문 중정당



도동서원 강당



## 경남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주 제향인물 : 일두 정여창(1450~1504)



남계서원 묘정비각과 연못(동쪽 애련헌, 서쪽 영매헌)

## 전남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주 제향인물 : 하서 김인후(1510~1560)



필암서원 청절당



필암서원 경장각(敬藏閣, 정조임금 어필),  
사당 우동사(祐東祠) : 김인후, 양자징 배향

## 전북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주 제향인물 : 고운 최치원(857~미상)





무성서원 현가루



무성서원 가을 전경

무성서원 춘계 향사 초헌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2021. 3. 30)



사진출처 : 전북일보

무성서원 역사상 최초 여성 초헌관을 맡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충남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주 제향인물 : 사계 김장생(1548~1631)



돈암서원 강학당(양성당)



돈암서원 응도당(凝道堂) - 본채 12.8m, 양 측면의 눈썹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포함하면 약 16m이다.

##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통한지, 종가-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단 발대식(2021.4.29)



경북 종가 포럼  
(2021.10.19)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역사의 명 장면!**
- 빼앗겼던 나라도 되찾은 민족이다.
  - 잃어버렸던 금메달도 다시 찾은 민족이다.
  - 전쟁의 폐허에서 딛고 일어나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享祀禮) 비교연구

- 한재훈(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享祀禮) 비교연구

-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한재훈

## - 목차 -

1. 서론
2. 서원 향사례의 위상과 의의
3.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정초
4.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
5. 결론

## 1. 서론

서구의 교육전통 또는 근대적 교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교학전통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육시설 안에 향사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참배와 제향의 의식을 거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내용을 제향 대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향사의식을 통해 계왕개래(繼往開來)의 학자적 사명감을 교육과정 속에서 자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식을 전수하고 습득하는 매개체 내지는 교환소로 여겨지는 근대적 교육시설과 대비되는 동아시아 교학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동아시아의 교학전통이 처음부터 이런 체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고, 학(學)에서 묘학(廟學)으로 발전적 변화를 겪어오면서 이런 결과를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학이나 향교 등 관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원과 같은 사학으로 확장되어 왔다. 서원(書院)의 향사례(享祀禮)는 북송대에 시작되어 남송대에 정리된 모습을 갖추어 갔는데, 그것은 한·당대에 이미 정립된 국학이나 향교의 석전(釋奠) 또는 석채(釋菜)를 참고하면서 동시에 서원만의 정체성을 구축해간 결과물이다. 즉, 서원의 향사는 송대에 출현한 신유학이 자신들의 도통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자(朱子)의 창주정사석채의(滄洲精舍釋菜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리학을 추종하는 계열의 서원은 대체로 선진유학에서 송학으로 이어지는 도통(道統)을 기준으로 향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의식과 절차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의 서원이 향사의 대상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인물과 신들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데 비해, 성리학을 독신했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훨씬 엄격하게 도학(道學)을 대상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향사의 대상인물을 선정했다. 특히 한국(조선시대)의 서원은 대체로 공자와 그 제자들을 향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원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서원 향사례를 국학이나 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례의 하위에 설

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먼저 서원 향사례가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자신의 위상을 설정해왔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서원 향사례가 처음 도입된 단계에서 어떻게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서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갔는지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원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을지 합리적으로 짐작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서원 향사례의 위상과 의의

일반적으로 서원이 갖는 주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장서(藏書)와 강학(講學) 그리고 향사(享祀)를 꼽는다. 이는 서원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서원은 당대 개원13(725)년에 유서(遺書)들을 수집하고 교감과 편찬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과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이며, 이들 서원은 애초에 장서 기관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서원이 강학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중당 이후였으며, 향사 기능은 북송대에 이르러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5대의 서원이 장서 또는 독서를 위한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시설이었다면 북송대에 이르러 서원은 비로소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sup>1)</sup>

서원은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서원의 향사례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학의 묘학제도를 전범으로 삼아 모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 묘학제도는 동진시대에 국자학 서쪽에 공자묘를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갔고, 이는 다시 주학이나 현학 등 지방의 관학에까지 확산되었다. 북송대 서원의 향사례는 이러한 묘학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sup>2)</sup> 다만 북송 초기의 서원 향사는 이른바 국가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상서랑을 지낸 담주태수(潭州太守) 주동(朱洞)이 악록서원(嶽麓書院)의 산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제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상황 하에서 서원의 운영주체가 유학자와 정치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관료들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sup>

『예기·문왕세자』에 “처음 학교를 세우거든 반드시 선성과 선사께 석전을 올리라”<sup>4)</sup>고 하였는데, 공영달의 소에 따르면 이는 천자와 제후가 국학을 세웠을 때 거행해야 할 석전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학 석전례의 전통은 한대 이후 역대 왕조에서 준행되었다. 다만 향사의 대상인 선성과 선사를 한대에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로 삼았던<sup>5)</sup> 것이 조위(曹魏) 이후 공자와 안회(顔回)로 바뀌어 석전례를 봉행하였다.<sup>6)</sup> 당대에 이르러 당고조는 무덕2(619)년에 “국자학에 주공과 공자의 사당을 각각 세우고 사시로 치제하라”는 조칙을 내렸으나, 당태종은 정

1)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2)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3) 韩金燕, 「朱子沧州精舍祭祀思想研究」, 2015届硕士学位论文, 山西大学, 12页.

4) 『禮記』·「文王世子」: “凡始立學者, 必釋奠於先聖先師.”

5) 『後漢書·禮儀志』: “祀聖師周公、孔子, 牲以犬.”

6) 高明士, 「书院祭祀空间的教育作用」, 『国际儒学研究』第2辑, 1996, 202-3页

관2(628)년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자를 선성, 안회를 선사로 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였고,<sup>7)</sup> 『대당개원례』에서는 이를 확정함과 동시에 종사 95좌도 함께 선정했다.<sup>8)</sup>

서원 향사례의 독자적 위상은 아무래도 남송대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채의(釋菜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석채의에서 공자를 선성으로 하고, 안자·증자·자사·맹자를 선사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돈이·정호·정이·소옹·사마광·장재·이동을 선현으로 하여 향사를 봉행했다.<sup>9)</sup> 그러면서 주자는 “공자는 학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sup>10)</sup>고 하면서, 안자·증자·자사·맹자를 배향한 이유와<sup>11)</sup> 송대의 7현을 종사한 이유<sup>12)</sup>를 모두 도통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남송대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서원의 향사가 이른바 신유학의 도학적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남송대 이후 서원 향사에서는 『대당개원례』에서 선정했던 종사자 95좌와 같은 인물들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거나 하강되는 한편, 해당 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예를 들면 해당 서원이 속한 학파의 대표 인물이라거나 서원과 관계가 있는 저명한 학자 또는 서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한 관료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쟁신(諍臣)이나 선현 등이 서원의 주요한 제사 대상이 되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서원에서 공자가 향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 이는 한국의 서원이 대체로 공자를 향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과 큰 차이이다.<sup>14)</sup>

중국의 서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시켜 갔던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향사 대상의 선정이나 향사 의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향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서원이 위치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현(鄉賢) 중에서 도의와 충절이 있는 인물로 선정되 도학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sup>15)</sup> 둘째, 향사 의절을 제정할 때는 국학이나 향교의 석전에 준하되 용쇄의 차등을 두었다.<sup>16)</sup>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한국 서원의 향사 의절이 중국 서원의 향사 의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규모가 간소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7) 『唐會要』·「褒崇先聖」: “武德二年 …… 於國子監立周公、孔子廟各一所, 並以周公爲先聖, 孔子爲先師, 四時致祭. …… 貞觀二年十二月尚書左僕射房玄齡、國子博士朱子奢建議云: ‘武德中詔釋奠於太學, 以周公爲先聖, 孔子配享. 臣以周公、尼父俱是聖人, 庠序置奠, 本緣夫子, 故晉、宋、梁、陳及隋大業故事皆以孔子爲先聖, 顏回爲先師, 歷代所行, 古人通允, 伏請停祭周公, 升夫子爲先聖, 以顏回配享.’ 詔從之.”

8) 『大唐開元禮』·「序例上」: “仲春、仲秋上丁釋奠於太學, 孔宣父爲先聖, 顏子爲先師.”

9) 『朱子語類』 卷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顏氏、郈侯曾氏、沂水侯孔氏、鄒國公孟氏西向配北上, 並紙牌子; 濂溪周先生東一、明道程先生西一、伊川程先生東二、康節邵先生西二、司馬溫國文正公東三、橫渠張先生西三、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10) 『朱子語類』 卷90: “祭孔子必於學.”

11) 『朱子語類』 卷90: “配享只當論傳道, 合以顏子曾子子思孟子配.”

12) 『朱子全書』 卷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曰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曰邵曰張, 爰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13) 趙新, 「古代書院祭祀及其功能」, 『煤炭高等教育』, 2007年 第1期.

14) 柳肅, 「儒家祭祀文化与东亚書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 한국 서원 중에 공자에게 향사를 올리는 서원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 명종 11(1556)년 강원도 강릉에 창설되고 같은 해에 사액된 오봉서원(五峯書院)에서는 공자를 모시고 향사를 올린다.(임근실, 「16세기嶺南地域 書院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3쪽 <표 II-6> 참조.)

15)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봉서원(迎鳳書院)의 봉안 대상의 위차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의이다. 영봉서원 위차 시비와 관련해서는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에 그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과 달리 제향인물을 선정하고 그 위차를 정할 때 반드시 ‘도학(道學)’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퇴계(이황)와 금계(황준량)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역사교육논집』 54권, 201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6) 이와 관련해서는 윤희면,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호, 2000 참조.

다. 예를 들면 악록서원 석채의 경우 공자를 모신 문창각(文昌閣)에는 이른바 ‘태뢰’인 우(牛)·저(猪)·양(羊) 삼조(三俎)와 계(鷄)·압(鴨)·저두(猪肚)·저간(猪肝)·선어(鮮魚)·해삼(海蔘)·정간(鯉幹)·저요(猪腰) 등 팔완(八腕)을 장만하도록 하였고, 배향을 모신 규광각(奎光閣)에는 웅계(雄鷄) 1척(隻), 생육(生肉) 1방(方), 선어(鮮魚) 2미(尾)를 장만하도록 하였다. 청대 함풍3(1853)년에 창건된 잠언서원(箴言書院)의 경우도 악록서원보다는 간소하지만 양·시를 희생으로 장만하고, 변(簋)·두(豆)·형(鉶)·등(登)·정(鼎)·조(俎) 등의 제기를 구비하도록 하였다.<sup>17)</sup> 이는 그 이름이 비록 석전이 아니라 석채라고는 하였지만 공자에게 향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서원향사는 희생으로 시 또는 계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마저도 올리지 않는 규모로 봉행되었다.

서원은 향사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초기에는 국학 석전 등 묘학제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를 기점으로 도학적 도통의식을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면서 자신만의 위상을 갖추어 갔다. 특히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국학이나 향교 등의 관학과의 차등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원의 학문적 지향성이나 지역적 연고성 등을 바탕으로 준행되었다.

### 3.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정초<sup>18)</sup>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을 정위로 하고, 이듬해인 1544년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 1282-1348)과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 1302-1357)를 배위로 하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sup>19)</sup> 백운동서원의 주향인 문성공은 1297년 원으로 사행을 갔을 때 『주자서(朱子書)』를 직접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구해 왔다. 그 뒤에도 사람을 보내 공자와 그의 제자 70인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악기 및 육경(六經)과 제자사(諸子史)를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그는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을 본떠 자신의 호를 회헌(晦軒)이라고 할 만큼 주자를 경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감의 원활한 재정적 운영을 위해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하는 등 주자학 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신재는 문성공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사우를 짓고 향사를 지냈으며 강학 공간까지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명칭 역시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본떠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1549년 12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운동서원을 사액해달라는 주청을 당시 방백이었던 심통원(沈通源: 1499-?)을 통해 나라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액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 퇴계가 백운동서원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향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서원 향사례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신재가 서원을 창건하면서 제정하고 줄곧 시행해 오던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퇴계는

17) 蔣建国, 「儀式崇拜與文化傳播-古代書院祭祀的社會空間」, 『現代哲學』, 2006年 第3期.

18)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조선시대 서원향사례의 정초’의 내용은 논자의 선행연구 「退溪의 書院享祀禮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9) 『芝峯類說』 卷19 「宮室部·學校」: “東方舊無書院, 嘉靖年中, 周世鵬爲豐基郡守, 於白雲洞安裕舊基, 創書院, 爲士子藏修之所, 仍立祠以祀裕, 賜號紹修.”

두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향사의 ‘진설’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홀기’와 관련해서이다. 신재가 찬술한 『죽계지』<sup>20)</sup> 중 「행록 후」에는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해오던 향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향사의 진설도에 해당하는 「안문성공춘추대향도[배위동](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과 진설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이 그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이 당시 백운동서원에서 시행하던 진설 현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제식(祭式)」은 간략한 형태로나마 향사의식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식」은 역시 신재에 의해 별도의 첩(帖)으로 만들어진 「홀기」와 더불어 당시 향사의 의식절차를 보여준다.<sup>21)</sup>

퇴계는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蜜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는다. 퇴계가 진설에서 밀과의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국속에 따른 ‘설미(褻味)’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가 『죽계지』 본도를 살펴보니, 우측 두 번째 두(豆)에 연밀과(軟蜜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주씨(周氏)의 의도는 문성공 등이 모두 동인(東人)이기 때문에 국속에 따라 밀과를 제향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동인일지라도 기왕 학(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지, 어찌 밀과와 같은 설미를 학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과(果)임에도 두(豆)에 담아 올린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sup>22)</sup>

【도표 1】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sup>23)</sup>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菁菹	蜜果 韭菹	簋(黍) 簋(稷)	簋(稻) 簋(粱)	乾棗 鹿脯 栗黃
		鷄腥 俎 幣篚		
燭	爵	香鑪 爵	爵	燭
祝站	門	門	門	
		○瓶 (正位尊所)	○瓶 (配位尊所)	

‘학(學)’으로서의 서원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고유한 운영방식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20) 1543년 白雲洞書院을 창건한 愼齋는 이듬해인 1544년 白雲洞書院의 享祀 대상인 文成公을 위시한 竹溪安氏의 행적이나 관련기록물[行錄] 그리고 書院의 재정상태[學田]와 도서관비상향[藏書] 등을 기록한 『竹溪志』를 찬술하였다.

21) 退溪는 「祭式」과 「笏記」를 비교·검토하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國朝五禮儀』·「釋奠儀」를 전거로 삼아 『笏記』 역시 새롭게 정비한다.

22)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既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蜜果褻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23) 【도표 1】「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은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6. 愼齋笏記, (117쪽) 참조.(단, 본 자료에서는 ‘6. 退溪笏記’, ‘7. 愼齋笏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6. 愼齋笏記’, ‘7. 退溪笏記’로 바로잡아야 한다.)

서 행해지는 일체의 향사례 또한 이러한 이유와 방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의식절차로 제정된 예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견해였다. 그는 이처럼 서원의 위상을 ‘학’으로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례에 근거한 ‘설미’를 서원의 향사에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밀과를 변(籩)이 아닌 두(豆)에 진설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퇴계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퇴계는 밀과를 진설에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좌측 변(籩)에는 포(脯)·과(果), 우측 두(豆)에는 해(醢)와 저(菹)의 방식으로 제품 진설에 전반적인 수정을 가했다.

이제 밀과를 제거하고 녹해(鹿醢)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변(籩)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鱸)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변의 포·과와 우두의 해·저가 둘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sup>24)</sup>

【도표 2】 退溪 修正: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菁菹	<b>鹿醢</b> 韭菹	簋(黍) 簋(稷)	鷄腥俎 幣篚	簋(稻) 簋(粱)	<b>魚鱸</b> <b>乾棗</b>	鹿脯 <b>栢子</b>
燭	爵				爵	燭
祝站						
門			門	正位尊 ○	配位尊 ○	門

퇴계는 향사례의 진행방식을 규정한 笏記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서원에서의 향사는 석전성례(釋奠盛禮)이기 때문에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두 개의 절차로 구분하여 별도의 의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묘제홀기」에서는 몽둥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태검(太儉)”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sup>25)</sup> 두 번째는 당연히 ‘음복(飮福)’을 먼저 하고 ‘수조(受胙)’를 나중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묘제홀기」에서는 이들의 순서를 뒤바꿔놓음으로써 의식절차들 상호간에 갖는 의미관계에 혼동을 야기했다는 점이다.<sup>26)</sup> 세 번째는 ‘수조(受胙)’를 한 다음에는 ‘수희(受禧)’의 배례를 올리고 ‘철변두(徹籩豆)’를 한 다음에는 ‘제필(祭畢)’을 고하는 배례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공묘제홀기」에서는 ‘수조’를 한 다음 ‘수희’의 배례는 생략한 채 ‘철변두’를 진행하고 한꺼번에 배례를 올리게 함으로써 의식의 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7)</sup>

24)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7. 退溪笏記.(121쪽):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鱸, 則左籩脯·果, 右豆醢·菹, 兩兩相對, 無參差矣.”

25)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香而旋初獻, 是爲太儉.”

26)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及『祭式』, 皆先飮福後受胙, 舊『笏記』則先受胙後飮福, 非禮之本.”

27)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受胙後四拜, 爲受禧拜也; 徹籩豆四拜, 爲祭畢拜也.”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재의 「문성공묘제홀기」와 같은 이름의 홀기를 새롭게 제정한다. 이 신홀기<sup>28)</sup>에서 퇴계는 ‘석전의’(『국조오례의』·「주현석전문선왕의」)를 전거로 삼아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을 가했다. 신홀기는 이처럼 구홀기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구홀기에는 없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한층 완결된 형태의 홀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신홀기에서 퇴계는 향사례에서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화하였고,([도표 3]참조) 정위와 배위에 대한 축문 내용도 재검토하여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 지어 실었다.<sup>29)</sup>

【도표 3】 文成公廟祭笏記：備三獻官六執事

初獻官：郡守，有故則斯文	祝：斯文
亞獻官：斯文	贊者一人：院有司或諸生
終獻官：斯文	謁者一人：院諸生
	贊引一人：院諸生
	司尊一人：院諸生
	奉香一人(奉爵兼)：院諸生
	奉爐一人(奠爵兼)：院諸生
	院諸生不備則校生

16세기 중엽까지도 조선에는 서원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그것은 서원이 아직 많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서원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국학이나 향교 등이 있음에도 왜 서원이라는 교육공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특히 서원에 선현을 모시고 향사를 행하는 의식절차는 아직 속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사례를 정립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 퇴계이다.

퇴계는 만년에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역동서원(易東書院)의 건설에 적극 개입하면서 서원의 명칭을 직접 짓고 썼던 것은 물론 부속건물들의 명칭까지 제정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sup>30)</sup> 이때 퇴계는 역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sup>31)</sup> 실제로 역동서원의 향사홀기는 백운동서원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sup>32)</sup> 또한

凡禮之節，皆有意義，不可徑削。… 舊『笏記』直削受禧之拜，只於徹籩豆後行再拜，非也。”

28)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慎齋의 「文成公廟祭笏記」는 退溪가 ‘舊笏記’로 지칭한 바에 따르고, 이에 대해 退溪가 새롭게 제정한 「文成公廟祭笏記」는 편의상 ‘新笏記’로 지칭하기로 한다.

29) 「文成公廟祭笏記」：● 文成公 祝文：“尊信斯道 闡教東方 功存學校 惠我無疆”(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東方’이 ‘吾東’으로 되어 있고, 惠我無疆이 ‘百世攸宗’으로 되어 있다.) ● 文貞公 祝文：“仍用”(이는 다른 축문들의 경우 기존의 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 文敬公 祝文：“剛德廉清 進禮退義 遺風凜然 儒夫立志”(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祭安文敬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清’이 ‘節’로 되어 있다.) 참고로 紹修書院 소장 자료 역시 陶山書院 소장 자료 ‘遺墨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嶺南文獻硏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다만, 陶山書院 소장 자료는 草書로 쓰여 있고, 紹修書院 소장 자료는 楷書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30) 『月川集』 卷5, 「易東書院事實」：“是夏四月堂成，前列六楹曰明教堂，東西各有溫房，東曰精一齋，西曰直方齋。直方之北藏書閣曰光明室，堂後少東立祠廟三間曰尚賢祠，前列東西二齋各三間，東四勿，西三省，其南立大門曰入道，西齋之西立廚庫，總名之曰易東書院，皆先生所定也。”

31) 『退溪全書』 續集卷6, 「與琴聞遠[丁卯]」：“竹溪書院「祀文成公儀」舊有謄本，共覽去取，以爲他日祭禹公之儀何如?”

정자(이천)와 주자(운곡)를 주향으로 하고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을 배향한 천곡서원(川谷書院)<sup>33)</sup>의 향사례 역시 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sup>34)</sup> 서원과 관련한 퇴계의 영향은 율곡을 주향으로 하는 신흥서원(莘菴書院)에서도 참고자료가 되었다.<sup>35)</sup> 이는 퇴계가 학파를 불문하고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4.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하여 조선에는 무수히 많은 서원들이 창설되었고, 이후 사설(私設)과 첩설(疊設) 등의 남설(濫設)과 그로 인해 빚어진 적폐를 이유로 고종대에는 47개의 서원만을 남기고 수백 곳의 서원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sup>36)</sup> 이 9대서원의 이름과 지역 그리고 창건 연도와 사액 연도 및 주향과 배향(종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음 표와 같다.

【도표 4】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소재지	영주 (경상도)	함양 (경상도)	경주 (경상도)	안동 (경상도)	장성 (전라도)	대구 (경상도)	논산 (충청도)	정읍 (전라도)	안동 (경상도)
창건	1543	1552	1572	1574	1590	1605	1634	1615	1614
사액	1550	1566	1574	1575	1662	1607	1660	1696	1863
주향	安珦	鄭汝昌	李彦迪	李滉	金麟厚	金宏弼	金長生	崔致遠	柳成龍
배향/ 종향	安軸 安輔 周世鵬	姜翼 鄭蘊		趙穆	梁子澂	鄭述	金集 宋浚吉 宋時烈	丁克仁 宋世琳 申潛	柳衫

32) 韓國國學振興院,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참조.

33) 川谷書院은 『京山志』(星州邑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을 서쪽 16리, 明巖方 雲谷里 伊川 가에 있다. 嘉靖 戊午(1558)년에 牧使 盧慶麟이 고을 사람들과 함께 창건하였고, 錦溪 黃俊良이 이를 이어 공사를 마쳤다. 처음에는 迎鳳書院이라 扁額을 달았다. 장차 文烈公 李兆年, 文忠公 李仁復과 文敬公 金宏弼을 奉安하라고 하였다. 그 뒤 선비들이 갈무리된 두 이씨의 眞影에 念珠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하여 배척하였다. 寒岡 鄭述가 臥龍의 故事를 인용, 李滉에게 稟議하여 伊川과 雲谷을 봉안하였다. 이는 地名이 우연히 서로 같기 때문이었다. 인하여 金宏弼을 從享하였다. 宣祖때(1573) 조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아 마루 북쪽에 걸었다. 또 동쪽 벽에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이항의 글씨이다. 仁祖 癸亥(1623)년에 조정에 요청하여 文穆公 鄭述를 從祀하였고, 壬午(1642)년에 또 조정에 요청하여 文康公 張顯光을 종사하였다.”

『寒岡集』卷9, 「書川谷書院額板下」에 의하면 寒岡은 1568년 退溪를 찾아뵙고 臥龍故事를 인용하여 書院名을 ‘川谷’으로 정하고 아울러 편액을 직접 써 달라고 청하였다. 1573년에는 東岡(金宇顙)이 經筵에서 임금께 청하여 편액을 하사받았다. 이 두 편액은 임란으로 소실되었고, 그 후 1599년에 후일 書院 重建을 대비하여 石峯(韓濩)의 筆로 현판을 준비하였다. 또 寒岡은 退溪의 古宅을 방문하여 退溪가 마을에 들지 않아 버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大字로 쓴 ‘川谷院’ 세 글자를 찾아내고, 또 退溪의 親筆인 ‘易東書院’의 ‘書’자를 본떠서 보충해 넣고 판각해서 川谷書院으로 보냈다.

34) 『苟全集』卷4 「答龍山洞主朴上舍胤胤書」: “某向參川谷書院享祀, 見伊川、雲谷兩位各有祭文, 就質于寒岡, 則乃曰‘此是退溪先生所講定’.”

35) 『宋子大全』卷171 「莘菴書院廟庭碑」: “淸州治東有洞焉, 有澗谷林泉之勝. 自隆慶庚午創立書院, 號曰有定, 以爲士子藏修之所, 而又建祠宇於其後, 妥侑九先生祀板, 而依李文純公所定迎鳳之儀, 隔截東偏, 以奉李文成公, 而七先生以次而序齋焉, 西溪則位西而面東.”

36) 9大書院의 享祀禮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陶山書院 別有司이신 李東耆 先生의 도움에 힘입었음을 밝히며 감사를 드린다.



								鄭彦忠 金若默 金灌	
--	--	--	--	--	--	--	--	------------------	--

### (1) 기일(期日)

조선시대 서원 향사의 기일은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의 중정일(中丁日)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몇 서원에서는 계춘(季春)과 계추(季秋)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9대서원의 경우도 7곳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에서만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도표 5】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향사 기일	계춘	중춘	중춘	중춘	중춘	중춘	중춘	중춘	계춘
	계추	중추	중추	중추	중추	중추	중추	중추	계추
	상정	중정	중정	중정	중정	중정	중정	중정	상정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는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국학에서 선성·선사·선현 등에게 석전을 봉행하기 때문에 이와 차등을 두기 위해서이다.<sup>37)</sup> 이는 1605년 한훤당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한 한강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가 실은 본원이 되는 곳임에도 근래에 너무 심하게 퇴폐한 관계로, 학식이 있는 선비들조차 유속에 뒤섞여서 (향교의 제향을) 남의 집 제사 보듯 하니 이 어찌 성인을 존중하고 도를 옹위하려는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원임(院任)이 상정일에 지역 유생들을 인솔하고 먼저 석전에 참여한 뒤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에 봉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한 몸이면서도 선후의 질서를 갖게 될 것이다.<sup>38)</sup>

이렇게 국학과 서원의 향사기일에 차등을 둬으로써 관학과 사학 사이의 질서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생각은 서원과 향사(鄉祠)의 기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향사의 기일은 보통 중춘과 중추의 하정일(下丁日)로 정하게 되었다.<sup>39)</sup>

소수서원에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신재가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재는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향사일을 ‘계월

37) 『朱子全書』別集卷8「釋奠申禮部檢狀【見臨漳語錄】」: “釋奠時日, 注云: ‘仲春上丁, 仲秋下丁.’ 某檢準紹興、乾道、淳熙令, 並云‘二月、八月上丁釋奠文宣王’, 即無‘下丁’之文. 又嘗竊見『五禮』申明冊內有當時州郡申請, 禮局已改‘下丁’爲‘上丁’訖, 其後又見故敷文閣待制薛弼任杭州教授時所申. 今到本州檢尋頒降舊本, 却無此條. 恐是前後節次頒降, 致有漏落. 將來如蒙別行鑄板, 即乞先於儀內改‘下丁’作‘上丁’字. 仍檢申明冊內, 備錄此條全文, 附載篇末, 以證元本之失.” / 『國朝五禮序例』吉禮·時日: “仲春、仲秋上丁, 釋奠文宣王.”

38) 『寒岡集』續集卷4「院規【爲道東作】」: “鄉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每值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釋尊後, 本院祀事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 先後有倫也.”

39) 『睡谷集』卷10「報恩縣成東洲趙重峯兩先生鄉祠記」: “每春秋仲月下丁, 一縣儒品長少畢會, 具牲牢以薦獻, 如釋菜之儀. …… 其用下丁, 以院享在中丁也.”

상정'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0)</sup> 두 번째 이유는 그 뒤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개정하면서도 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남서원(道南書院)의 원생들도 “가을장마에 물이 불어나면 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중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하던 것을 계월 상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며 한강에게 자문을 구할 때,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일을 개정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sup>41)</sup> 병산서원 역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을 향사기일로 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 (2) 성생(省牲)

성생은 향사에 바칠 희생이 튼실하게 살이 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의식이다.<sup>42)</sup> 이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監牲),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 필암서원에서는 충돌례(充臚禮)라고 달리 부르고 있지만 같은 의식이다. 성생은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당서』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자는 태상경을 인도하고 찬인은 어사를 인도한다. 단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 쫓는 것을 살펴본다. 그런 뒤 내려와 성생위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선다. 능희령이 조금 앞으로 나와 “성생을 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태상경이 성생을 한다. 능희령이 북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찘습니까?[돌(臚)]”라고 하면, 모든 태축들이 각자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찘습니다.[충(充)]”라고 한다. 모든 태축들과 능희령은 줄을 지어 희생을 끌고 푸줏간으로 가서 태관에게 넘겨준다.<sup>43)</sup>

『국조오례서례』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의식절차가 실려 있다.<sup>44)</sup> 다만 문선왕에게 올리는 석전은 중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한다.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희생의 충돌을 살핀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sup>45)</sup> 물론 이것은 서원에서 성생을 하는 의식은 아니고 국가전례이다. 그러나 헌관들이 성생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생을 할 때 ‘돌’과 ‘충’을 외치면서 희생의 상태를 서로 점검하는 의식은 서원의 성생에도

40) 『竹溪志』「雜錄後」 院規: “上巳之清明、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追而祭之, 公必樂而降歆.”

41) 『寒岡集』卷3 「答道南院生」 道南院生問: “院在長江大川之間, 每遇秋雨大浸, 則四方士子至者甚少. 竊念書院享祀, 國中通用仲月中丁, 不敢有異議, 而事勢如右, 欲用季月上丁, 以避水潦, 得免闕事之患. 此又非全無所據, 嘗見周慎齋所定紹修儀範, 軌中未穩處, 退溪先生多所評改, 而祭用季月上丁一段則不改. 若是大段未安, 則必不仍存, 就季月上丁以行何如?”

42) 『舊唐書』卷24 志第4·禮儀4: “太牢皆棧飼於廩犧署, 以至充臚. 臨祭, 視其充瘦, 謂之省牲.”

43) 『新唐書』卷11 禮樂志第1: “謁者引太常卿, 贊引引御史, 入詣壇東陛升, 視滌濯, 降就省牲位, 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太常卿省牲. 廩犧令北面舉手曰‘臚’,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曰‘充’. 諸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廚授太官.” / 참고로 『大唐開元禮』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唐開元禮』卷16, 吉禮·省牲器: “謁者引太常卿, 就省牲位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退復位. 太常卿省牲. 廩犧令又前, 北面舉手, 曰‘臚’, 還本位.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 曰‘充’, 俱還本位. 諸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廚, 授太官令.”

44)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終獻官, 【若領議政爲亞獻, 則亞獻官省牲器.】贊引引監察升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舉羃告潔. 訖, 引降就省牲位, 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終獻官省牲. 掌牲令又前, 舉手曰‘臚’, 復位, 諸太祝各巡牲一匝, 西向舉手曰‘充’, 俱復位. 請大祝與掌牲令, 以次牽牲, 詣廚授典祀官.”

4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 【外則無監察.】俱以常服, 視牲充臚.”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전례를 참고하였겠지만 정해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서원의 경우 「성생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위에 이른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축은 희생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다. 사생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축이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다.[충(充)]”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이 조금 앞으로 나서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다.[돌(膂)]”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은 희생을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사관에 넘겨준다.<sup>46)</sup>

소수서원의 성생은 앞서 살펴본 국가전례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의식절차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전례에서는 능희령 또는 장생령이 먼저 “살이 찼습니까?[돌(膂)]”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 태축 또는 대축이 “살이 찼습니다.[충(充)]”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축이 먼저 “살이 찼다[충(充)]”고 말하면, 이에 대해 사생이 “살이 찼다[돌(膂)]”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전례의 성생례는 희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희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물으면 제관들이 이를 살펴본 다음 충분하다고 답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제관(축)이 먼저 말하고 담당자(사생)가 나중에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생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원에서 국가전례처럼 희생을 키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충분함을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는 유사가 묻고 헌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헌관이 희생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선다.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희생의 주위를 세 바퀴 돈 뒤, 손을 씻고 꿇어앉아 희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헌관을 향해 “살이 찼습니다.[돌(膂)]”라고 하면, 헌관은 “살이 찼습니다.[충(充)]”라고 말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이 의식을 감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도로 축과 장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와 헌관이 감생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할 때 ‘충(充)’이라 하고, 답할 때 ‘돌(膂)’이라 하기도 한다.”는 말을 첨부해두었다.<sup>47)</sup>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사와 헌관이 희생의 충(充)·돌(膂)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유사가 희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국궁을 하고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희생의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46) 『紹修書院誌』: “謁者引獻官, 詣省牲位. ○近南北向. ○祝位於牲西東向. ○司牲位於牲東西向. ○祝巡牲一匝. ○東向舉手曰‘充’. ○退復位. ○司牲少前舉手曰‘膂’. ○退復位. ○司牲牽牲詣廚. ○授典祀官.”

47) 『玉山書院笏記帖』: “獻官立於牲南北向. 齋有司自西折旋而左巡者三, 盥水帨手, 跪而檢摩牲, 向獻官揖告曰‘膂’, 獻官曰‘充’.【或告充答膂.】”

다.<sup>48)</sup>

이밖에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충’을 고하면 헌관이 ‘돌’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돌’을 고하면 헌관이 ‘충’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둔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은 성생하는 절차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원의 향사례 자체가 정해진 예제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국가전례를 참고하면서도 그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49)</sup> 따라서 국가전례 가운데 어떤 점은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표 6】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둔암	무성	병산
성생	祝充 司牲脤	祝充 獻官脤	有司脤 獻官充	有司充 獻官脤	祝充 獻官脤	祝脤 獻官充	×	×	×

### (3) 진설(陳設)

서원 향사례의 특징은 아무래도 진설의 내용과 규모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진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한 이후 이른바 ‘설미’가 진설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석전에 진설되는 제품들을 참고해서 진설되었다. 이에 비해 제기의 개수와 희생의 종류 등으로 대표되는 진설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학 또는 향교 그리고 향사 사이에서 서원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견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제기(祭器): 서원에서 사용하는 제기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학이나 향교에서 시행하는 석전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당개원례』를 보면 국학에서 시행하는 선성과 선사에게 올리는 석전의 경우 “변(簋)·두(豆) 각각 10개, 보(簠)·궤(簋) 각각 2개 그리고 등(甗)·형(鉶)·조(俎)는 각각 3개”라고 했고, 주현의 석전에서는 “변·두 각각 8개, 보·궤 각각 2개 그리고 조는 각각 3개”라고 했다.<sup>50)</sup> 『국조오례의』에서도 주현의 경우 조가 2개라는 것만 다를 뿐 대부분 『대당개원례』의 형식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sup>51)</sup>

이에 비해 서원의 향사에서는 대부분 보·궤는 각각 1개, 변·두는 각각 4개 그리고 조는 1개로 하는 규모를 채택한다. 이는 국학이나 향교보다는 간소하지만 국학이나 향교의 종사에 올리는 규모(변두 각각 2개, 보궤 각각 1개 그리고 조 1개)<sup>52)</sup>보다는 융숭한 것으로, 국학이나

48) 『陶山書院儀節』: “有司就牲前北向立, 鞠躬告曰‘充’. 獻官就牲東西向立, 應曰脤. ○有司又就牲西東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南北向立, 應曰‘脤’. ○有司又就牲北南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西東向立, 應曰‘脤’.”

49)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笏記』無省牲儀. 國學則初獻官省牲, 而祝告充脤; 州縣則終獻官省牲, 而不告充脤, 未知院享則何以爲之?” (答)“『舊儀』, 初獻官以下就繫牲處列立, 祝告充脤.”【右川谷奉安】

50) 『大唐開元禮』卷1 『序例上』: “春秋釋奠於孔宣父、九十五坐. 先聖、先師各簋十、豆十、簠二、簋二、甗三、鉶三、俎三.” 같은 책 같은 곳: “州縣祭社稷、先聖, 釋奠於先師, 每坐各簋八、豆八、簠二、簋二、俎三.”

51)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향교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그것과는 용쇄의 차등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제기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도표 7】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보·괘	兩簠 兩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兩簠 兩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一簠
변·두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三籩 三豆	四籩 四豆	四籩 四豆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보·괘를 각각 2개씩으로 했다는 점과 돈암서원만 변·두를 각각 3개씩으로 했다는 점이다.

먼저, 소수서원에서 보·괘를 각각 2개씩으로 하는 것은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에서 애초에 보·괘를 2개씩 사용했던 전통이 있었다는 점, 특히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해 수정을 가하면서도 이러한 규모를 그대로 묵인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의 경우도 소수서원 향사례에 담긴 퇴계의 뜻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규모를 채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들은 이보다 더 간소화한 형태로 1보1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산서원에서도 ‘계미국감(癸未國減)’의 조처에 따라 1보·1괘로 줄여서 진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sup>53)</sup>

변·두의 규모 역시 백운동서원과 퇴계의 선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한강은 삼익재(三益齋) 이천배(李天培: 1558-1604)와 천곡서원의 향사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제기의 규모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삼익재는 향교에서 8변·8두를 사용하므로 서원에서는 6변·6두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한강은 4변·4두가 적합하다는 답을 제시하였다.<sup>54)</sup> 한강은 천곡서원 뿐만 아니라 도남서원이나 도동서원 등 서원의 창설과 운영에 관련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계의 입장을 많이 참고했음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돈암서원에서 유독 3변·3두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고할 수 없다.

②생조(牲俎): 생(牲)은 조(俎)에 올려서 진설하게 된다. 따라서 진설되는 조의 개수가 곧 생의 규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국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에서는 태뢰(우·양·시)를 올리기 때문에 조가 3개이고, 주현의 향교에서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만 올리기 때문에 조가 2개이다. 그러나 국학과 향교에서도 종사에는 조가 1개이고 여기에는 시성을 올린다.<sup>55)</sup> 조선의 서원에서는 대부분 시생(豕牲)만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향교의 석전과 비교했을 때 용쇄의 차등을 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생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도표 8】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	----	----	----	----	----	----	----	----	----

52)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釋奠從享【州縣同】」 참조.

53) 『陶山書院笈記帖』 및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국학연구』22, 25쪽 참고.)

54) 『寒岡集』卷6 「答李景發」(問)“祭品, 州府大祭, 用八籩八豆, 今用六籩六豆似宜, 而但念兩先生祭享, 非若鄉賢之例, 何如?”(答)“二先生用四籩四豆, 寒暄先生用『五禮儀』從祀之式, 左右各二籩二豆.”

5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생	鷄	豕	鷄	鷄	豕	豕	豕/羔	豕	猪
---	---	---	---	---	---	---	-----	---	---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서는 특이하게도 계성(鷄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鷄)는 『주례』에 등장하는 육생(六牲) 중 하나이고,<sup>56)</sup> 『좌전』에는 오생(五牲)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sup>57)</sup> 『예기』에도 여러 희생들 중 우(牛)·시(豕/豚)·양(羊)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다.<sup>58)</sup> 이런 전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계가 우·양·시와 차등을 가지면서도 주요한 희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에서 희생으로 계성(鷄腥)을 채택한 까닭 역시 서원의 위상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대안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서원의 향사례에서 계성을 올리는 것은 백운동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준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퇴계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서원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준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한동안 서원 향사례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한강의 고제인 동호(東湖) 이서(李穡: 1566-1651)는 “도산서원과 서계서원의 준례에 따라 계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59)</sup> 하지만 계생을 쓰는 것은 어느 시점 이후에 서원의 향사례로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었고,<sup>60)</sup>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서원에서 시생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본래 계성을 올리던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도 시생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③폐비(幣篚): 폐(幣)는 비(篚)에 담아서 진설하게 된다.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 역시 향사의 위상과 규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국학과 향교의 석전인 경우 문선왕과 배위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을 올린 뒤에 이것을 올리라”[上香後奠此]고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종향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sup>61)</sup> 서원 향사례의 경우에는 서원별로 폐비를 진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도산서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폐비를 진설하다가 나중에 ‘무진국감(戊辰國減)’의 조치에 따라 진설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 각 서원별로 폐비가 진설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도표 9】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폐	×	○	×	△	○	○	○	○	×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는 향사의절에서 전폐례를 시행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망예(望瘞) 또는 망료(望燎)를 할 때 축문과 폐를 함께 묻거나 불사르느냐 아니면 축문만 묻거나 불사르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폐를 할 경우에는 축문에도 이를 명시하므로 축문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수서원의 경우 진설도에는 폐비가 명시되어 있지만, 신재는 「의도제용잡물식」에서 “별제

56) 『周禮』·「地官·牧人」: “掌牧六牲而阜蕃其物, 以共祭祀之牲牷.” 鄭玄: “六牲, 謂牛、馬、羊、豕、犬、鷄.”

57) 『左傳』 昭公十一年: “五牲不相爲用.” 杜預: “五牲, 牛、羊、豕、犬、鷄.”

58) 『禮記』·「曲禮下」: “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 豕曰剛鬣, 豚曰腍肥, 羊曰柔毛, 鷄曰翰音, ……”

59) 『東湖集』卷1 「答金圓菴以謙」: “書院之不用鷄牲, 先生嘗言其非. …… 依陶山、西溪例用鷄牲, 則正是先生之遺意也.”

60) 『无悶堂集』別集卷1 「龍淵書院請額疏[周案]」: “春秋享祀, 亦多苟簡, 薄酒鷄牲, 未成儀式.”

61)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別祭)가 아니면 폐를 사용하지 말라”<sup>62)</sup>고 하였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는 퇴계가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할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 옥산서원 역시 현전하는 홀기의 진설도에는 폐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진설도에는 폐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현행 축식에는 “청작생폐(淸酌牲幣)”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축식에는 “청작결생(淸酌潔牲)”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폐에 대한 언급은 없다.<sup>63)</sup> 따라서 현전하는 홀기에 전폐례가 있고 망료례를 행할 때도 축문과 폐를 함께 불사르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병산서원은 진설도에도 폐비가 없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례가 없으며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 서원들과 달리 나머지 서원들에서는 폐비를 대부분 진설하고 있다. 특히 필암서원에서는 “폐포(幣布)는 29척(정위: 18척, 배위: 11척)”이라고 폐의 종류와 규모까지 명시하고 있다.<sup>64)</sup> 돈암서원에서도 “폐는 저포(苧布)를 사용하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1장8척이다. 저포가 없을 경우 백포(白布)나 백면포(白綿布)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sup>65)</sup> 도산서원의 경우는 진설도에 폐가 명시되어 있어서 원래는 폐를 진설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좌우에 ‘무진(戊辰)’과 ‘국감(國減)’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처에 따라 더 이상 폐를 진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홀기에도 전폐례에 관한 글귀들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였고,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게 하였다.

## 5. 결론

중국 당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해온 서원은 북송대에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송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향사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서원의 향사는 국학이나 주현의 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을 하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융쇄의 차등을 견지한다. 특히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른바 신유학의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가 하면, 의식절차에서는 훨씬 간소화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서원 향사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신재 주세붕이 1543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며, 이 서원은 퇴계 이황의 주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다. 이러한 서원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퇴계는 신재가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고, 제관의 구분과 수행조건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공했다. 이후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퇴계의 작업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갔다.

조선시대에는 수백 개의 서원들이 세워졌고, 그 많은 서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양산해내자 대대적인 획철의 과정을 겪기도 했다. 현존하는 서원들 중에 대표적인 서원이 이른바 9대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병산서원)이다. 이 9대서원의 향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들이 어떻게 향사례를 전개해갔

62) 『竹溪志』·「依圖祭用雜物式」: “非別祭, 勿用幣.”

63)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玉山書院誌』, 1993, 嶺南大學校出版部, 39쪽.

64)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幣布二十九尺【正位十八尺, 配位十一尺.】”

65)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幣【用苧布, 長一丈八尺, 用造禮器尺. 無則代以白布, 或白綿布.】”

는지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들 서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서원 향사례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가려고 했는지 구명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서원들은 자신의 위상을 향교와 향사의 중간에 설정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특히 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석전을 참고하면서도 용쇄의 차등을 견지하려고 긴장했다. 향사기일은 향교의 춘추석전이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거행되는 것을 감안해 서원의 춘추향사는 대체로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진행했다. 제품 진설과 관련해서도 제기의 개수와 그에 연동하는 제수의 품목을 향교보다 간소한 형태로 조정하였고, 특히 생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폐를 진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긴장과 고민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들은 한국적 서원 향사례를 조성해나갔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경우 9대서원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외의 서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원의 향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가 대동(大同)을 유지하면서도 소이(小異) 또한 존속케 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서원의 향사례를 넘어 조선시대의 서원문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갔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참고문헌>

『禮記』

『左傳』

『後漢書』

『舊唐書』

『新唐書』

『大唐開元禮』

『唐會要』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例』

朱 熹, 『朱子語類』

朱 熹, 『朱子全書』

李 滉, 『退溪全書』

趙 穆, 『月川集』

鄭 述, 『寒岡集』

李睟光, 『芝峯類說』

李 筵, 『東湖集』

金中淸, 『苟全集』

朴 綏, 『无悶堂集』

宋時烈, 『宋子大全』

李 畚, 『睡谷集』

『竹溪志』

『京山志』

紹修書院所藏, 『紹修書院誌』, 2007.

玉山書院所藏, 『玉山書院笏記帖』

陶山書院所藏, 『陶山書院儀節』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Ⅰ.紹修書院資料, 1999.

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 2007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韓國國學振興院,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文苑編刊會, 1975.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1994.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昞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호, 2000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 『역사교육논집』 54권, 2015

高明士, 「书院祭祀空間의 教育作用」, 『國際儒學研究』第2輯, 1996.

- 蒋建国,「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現代哲學』,2006年 第3期.
- 赵 新,「古代书院祭祀及其功能」,『煤炭高等教育』,2007年 第1期.
- 柳 肃,「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年 第6期.
- 朱汉民,「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5年 第2期.
- 韩金燕,「朱子沧州精舍祭祀思想研究」2015届硕士学位論文,山西大学,2015.

# 한국 서원 강학의 지식사적 가치

-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한국 서원 강학의 지식사적 가치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1. 서론

조선시대 지식인은 ‘書院’이란 학술기관을 운영하였다. 16세기 중엽 周世鵬(1495~1554)이 설립한 白雲洞書院은 조선 서원의 시초였다. 16세기는 정치 세력이 士林으로 교체되는 시기였고, 성리학은 본격적으로 조선에 뿌리내렸던 시기였다. 선진 농법을 수용하면서 축적된 부를 기반한 영남지역의 지식인들은 『朱子家禮』에서 표방한 부계 혈족 가문의 중소 지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하던 시기에 節義를 숭상하여 낙향하였던 신진사대부의 學脈을 계승한 이들이 영남지역에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영남지역의 중소지주로 하여금 성리학적 질서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지식기관으로 서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풍기군수 주세붕은 지역민의 교육기관으로 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1542년(중종 37)에 주세붕은 安珦(1243~1306)의 祠廟를 건립한 후 이듬해 그 곁에 書院을 창건하였다. 이로써 尊賢과 講學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최초의 조선 서원이 등장한 것이었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性理學을 연구한 學人이자 詩文을 창작한 文人이며,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의 官僚이자 지방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지방 사회에 건립하여 운영한 書院은 그들의 사상과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서원에 대해서는 講學, 院任, 院生, 奴婢, 藏書, 享祀, 院規, 書院志 등 다방면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16세기에서 20세기 이후까지 서원에서 꾸준히 학술 활동이 이루어진 학술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서원을 본다면, 서원 강학의 가치는 가치와 의미는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서원의 강학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후대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상, 강학 규정과 그 운영의 특징, 강학 교재 및 장서가 내포하는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지식사적 관점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이 글은 한국 서원의 강학이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서원의 강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정되었던 16세기 서원의 學規를 살펴 서원 강학의 典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파별 서원 강학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 道學의 系譜[지식의 계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시기 공통적으로 학술기관을 운영한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서원 강학의 가치를 동아시아 지식사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 2. 서원 강학 규정의 제정과 특징

### 1) 강학 규정의 제정

서원은 조선의 정치·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士林들 사이에서 국법으로 제정된 鄉校의 운영과 달리 사립학교였던 서원의 운영방식 자체가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었다. 서원은 ‘明道術’에서 파생된 講明道學과 尊崇道學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講學과 尊賢의 두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었다.<sup>1)</sup>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원에서 院生의 講學活動을 중시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필요로 하였다. 더구나 각각의 서원마다 그 운영의 주체와 제향인물이 달랐기에 서로 다른 규정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16세기 서원은 강학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는 學規[院規]로 정리되었다. 특히 학맥과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이황이 제정한 학규와 기호지역 이이가 제정된 서원의 학규는 이후 退溪學派[南人]와 栗谷學派[西人] 서원의 典範이 되었다.

이 시기 영남지역 지식인들이 제정한 서원의 院規는 모두 6종이다.<sup>2)</sup> ①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竹溪志』 「雜錄後·(院規)」, ② 迎鳳書院[川谷書院]의 『迎鳳志』 「學規錄」, ③ 伊山書院의 「伊山院規」, ④ 臨臯書院의 『臨臯書院凡規』, ⑤ 吳山書院의 『吳山志』 「享祀」·「學規」 ⑥ 臨臯書院의 『書院規範』 등이다.<sup>3)</sup>

『竹溪志』 「雜錄後(院規)」는 주세붕이 『죽계지』에 수록한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원규로 1545~1548년에 제정하였다. 주세붕은 『죽계지』 卷5 「雜錄」의 뒤에 별다른 표제어 없이 5개조의 學規와 細目을 수록하였다. 『죽계지』에는 제목이 없기에 ‘院規’라는 명칭은 『晦軒先生實紀』의 제목을 따랐다.<sup>4)</sup> 이와 더불어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의 享祀儀禮에 관한 규정을 卷1 「安氏行錄」 뒤에 安文成公春秋大享圖, 依圖祭用雜物式, 祭式으로 기록하였다. 주세붕이 기록한 백운동서원의 원규는 『죽계지』의 전체 중에서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하였다. 주세붕은 5개조로 나누어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謹祀]’, ‘어진 이를 예우할 것[禮賢]’, ‘사당을 잘 보수할 것[修宇]’, ‘물자를 비축할 것[備廩]’, ‘서책을 점검할 것[點書]’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하에 세목에 해당하는 규정을 서술체로 기록하였다.

『迎鳳志』 「學規錄」은 盧慶麟이 작성한 영봉서원의 원규로 1559년(명종 14)에 제정되었다. 노경린은 영봉서원의 원규를 「學規錄」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1)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50~75쪽.

2) 연구 대상이 된 ‘서원’은 16세기 건립되어 祠廟를 설치하여 享祀를 시행하고, 士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던 기관이다. 따라서 精舍에서 발전하여 서원으로 陞院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서원의 강학 활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칭하는 단어는 講規, 院規, 齋規, 學規, 學令 등이지만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院規’를 대표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원의 원규를 기록한 사료를 선정할 때는 廣義의 개념의 院規를 사용하였다.

3) 이외에 德山書院[德川書院]도 1576년(선조 9)에 院規를 제정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德川書院誌』), 현존하지 않는다(丁淳佑·安承俊·金鶴洙, 「解題」, 『古文書集成』 2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13쪽.).

4) 權鼈(1589~1671)의 『海東雜錄』에서는 「白雲洞紹修書院立規」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있다.

『迎鳳志』에 수록하였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의 원규를 제목도 없이 수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경린이 작성한 영봉서원의 원규는 한 단계 진전된 상태로 파악된다. 그러나 노경린이 작성한 원규의 분량과 서술방식은 백운동서원의 원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경린은 영봉서원의 원규를 謹祀, 禮賢, 勸課, 修宇, 考廩, 點書, 擇院長의 7개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노경린은 백운동서원의 원규에 勸課와 擇院長의 조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노경린이 서원지를 편찬할 당시에 두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노경린은 각 조항 아래 부차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주세붕보다 구체적인 원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sup>5)</sup> 또 노경린은 영봉서원의 향사의례에 관한 내용을 春秋大享圖와 祭式으로 구분하여 『迎鳳志』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다.

『伊山院規』는 李滉이 생전에 건립하여 강학하던 伊山書院의 원규로, 그가 1559년(명종14)에 제정하였다. 이황은 1559년 5월에 경상도 영주에 이산서원을 건립한 이후 한동안 강학활동을 중심으로 서원을 운영하였다. 이황의 문인들은 스승의 사후에 이산서원에 그를 제향하여 향사의례를 지내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이황은 이산서원에 대한 記文을 작성하였고,<sup>6)</sup> 이산서원을 건립하면서 서원의 원규도 작성하여서 작성연대는 1559년으로 추정된다.<sup>7)</sup> 현재 「이산원규」는 『退溪集』에 수록되어 전해진다.<sup>8)</sup> 이황은 크게 조항을 나누지 않고 12개의 세목으로 「이산원규」를 작성하였다. 이때 특기할 부분은 享祀와 관련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황이 강학활동을 중심으로 서원을 운영하고, 제향인물을 모시는 祠廟를 두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후 이황이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였던 陶山書院과 易東書院에서도 같은 원규를 사용하였다.

『臨臯書院凡規』는 臨臯書院의 원규를 모아놓은 자료로, 1562년(명종 17)에 영천군수였던 金廉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자료이다. 1553년(명종 8)에 경상도 영천에서 이황과 교유하던 영천사람인 盧遂, 金應生, 鄭允良은 鄭夢周(1337~1392)를 제향하기 위하여 임고서원을 건립하였다.<sup>9)</sup> 이황은 임고서원을 각별히 생각하여 詩를 짓고, 서책을 증정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임고서원에 대한 이황의 애착이 수령과 방백에게 이어져 1554년(명종 9)에 사액되었다.<sup>11)</sup> 金廉은 임고서원의 원규를 5개조로 제시하고, 그 세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체로 기록하였다. 5개조의 원규는 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로 백운동서원의 원규와 같아서, 『죽계지』를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동서원의 원규와의 차이는 春秋大享圖와 依圖祭用雜物式이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즉, 『임고서원범규』는 『죽계지』에서 서원운영의 근간인 강학활

5)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204쪽.

6) 『退溪集』 卷42, 「伊山書院記」.

7) 『退溪年譜』.

8) 『退溪集』 卷41, 「伊山院規」.

9) 이종문, 「초창기 初期 임고서원 臨臯書院 연구」, 『한국학논집』 6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196~200쪽.

10) 『退溪集』 卷43, 「內賜性理群書. 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

11) 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람과 임고서원」, 『圃隱學研究』 6, 포은학회, 2010, 123~127쪽.

동과 향사의례에 관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채록하여 임고서원의 원규로 구성된 것이다.

『吳山志』 「享祀」와 「學規」는 인동현감 柳雲龍이 작성한 吳山書院의 원규로 1588년(선조 21)에 제정되었다. 류운룡은 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의 11개 조목과 그 아래 세목들을 『오산지』에 수록하였다. 류운룡은 陶山書院, 易東書院, 金烏書院, 川谷書院, 屏山書院의 院規와 『國朝五禮儀』, 『竹溪志』를 참고하여 원규를 정리하였다.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원규를 정리하면서 여러 서원의 원규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각 전거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류운룡은 스승 이항의 「이산원규」를 중시하여기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정된 『죽계지』의 원규보다 먼저 인용하였다. 또한 류운룡은 각 원규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내용에는 자신의 생각[按]을 추가하였다. 이 때문에 오산서원의 원규는 그 이전의 원규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그리고 류운룡은 有司, 院士, 居業, 防檢, 交際, 相正, 養賢, 典僕 등의 조목을 추가하여 원규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이항과 그 문인이 건립과 운영에 참여한 서원의 원규를 가장 많이 준용한 점도 특징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전 서원의 학규에서 謹祀로 표현되는 향사와 관련한 조항들은 하나의 권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류운룡은 『吳山志』 卷3 「學規」 앞에, 卷2 「享祀」를 배치하여 서원의 享祀儀禮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書院規範』은 앞서 살펴본 『臨臯書院凡規』와 함께 임고서원의 운영 지침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제정시기는 1588년(선조 21)에서 1631(인조 9)년 사이로 추정된다. 『書院規範』은 목판으로 인쇄된 판식을 갖춘 형태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그 내용은 향사관련 규정과 祭物式이 앞에 보이며, 그 뒤로 有司, 院士, 勸課, 交際, 養賢, 防檢, 相正, 修宇, 點書, 典僕의 10개 조목과 그 아래 세목들을 수록하였다. 그 다음에 신증된 학규조목과 完議가 있다. 그 내용은 『吳山志』 「향사」·「학규」와 거의 같고, 체제와 인용된 서원원규도 흡사하다. 그리고 신증된 조목 뒤에 수록된 완의의 시기가 ‘崇禎 四年(1631년)’이다. 따라서 『書院規範』의 작성 하한은 1631년이다. 하지만 신증되기 이전의 임고서원의 『書院規範』은 오산서원 원규와 체제와 내용면에서 매우 흡사하기에 『吳山志』의 작성시기인 1588년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16세기 원규에 포함하였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호지역인 황해도 해주에서 이이가 제정한 원규는 3종이다. ① 文憲書院의 「文憲書院學規」, ② 隱屏精舍[紹賢書院]의 「隱屏精舍學規」, ③ 隱屏精舍[紹賢書院]의 「隱屏精舍約束」이 그 비교의 대상이다.

「文憲書院學規」는 李珥(1536~1584)가 작성한 文憲書院의 원규로 1576~1584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50년(명종 5)에 황해도 해주(현재 황해도 벽성)에서 주세붕은 崔沖과 그의 아들 崔惟善을 제향하기 위해 문헌서원을 건립하였다. 최충과 최유선은 해주 향교에 배향되어 있었으나, 격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祠宇를 만들어 별도로 제향되었다. 이후 주세붕은 서원의 형식으로 정비하고, 사액을 추진하였다. 首陽山の 기슭에 있어 首陽書院이라고 불리다가,<sup>12)</sup> 편액과 서적을 하사받으면



서 文憲書院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원의 제향인물인 최충의 시호가 ‘文憲’ 이기에, 여기서 문헌서원이란 명칭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1565년(명종 20)에 이항이 지은 詩에서도 문헌서원이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1571년(선조 4)에 朴承任(1517~1586)과 韓性源이 주도하여 문헌서원을 鵲巖川 상류로 이군하였다.<sup>14)</sup>

이이가 문헌서원의 학규를 제정한 시기는 그가 해주에 은거한 1576년(선조 9)부터 그가 사망한 1584년까지로 추정한다. 이이는 1557년(명종 12)에 노경린의 딸과 혼인하여 성주에 거주하면서 영봉서원의 건립과정을 보았다. 그리고 이이는 예안에서 이항을 만났고, 이후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는 1570년(선조 3) 10월에 병으로 사직한 후 海州로 갔고, 계속 부임지와 해주를 오갔다. 이이는 1576년에 해주의 석담(현재 황해도 벽성)에 은거하면서 隱屏精舍를 건립하였고, 1578년(선조 11)에 「隱屏精舍學規」를 작성하였다.<sup>15)</sup>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문헌서원학규」도 이이가 해주에 은거했던 시기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서원학규」는 이항의 「이산원규」와 마찬가지로 크게 조항을 분리하지 않고, 16개의 세목으로 서술하였다.

「隱屏精舍學規」는 1576년에 이이가 해주 석담에서 은거하면서 건립한 隱屏精舍의 원규로 1578년(戊寅)에 작성하였다.<sup>16)</sup> 이이는 주희의 「武夷九曲」 가운데 大隱屏의 제목에서 은병정사의 명칭을 가져왔다. 은병정사를 창건한 후 학도들을 모아 강학활동을 할 때 당시 감사가 船稅로 거둬들인 魚鹽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어, 지방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이는 「은병정사학규」에 제향인물의 祠廟에서 享祀儀禮와 謁廟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즉, 이이는 精舍라고 명명하였지만 주희를 배향한 祠廟를 두었고, 서원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리라 추정된다. 1584년(선조 17)에 이이가 사망한 후 그의 졸기를 보면 은병정사를 세워 주희를 主享으로 하고, 趙光祖와 이항을 배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이유로 은병정사의 學規와 約束도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은병정사는 1610년(광해 2)에 紹賢으로 사액을 받았고, 이후 이이·成渾(1535~1598)·金長生(1548~1631)·송시열(1607~1689)을 제향하였다. 「隱屏精舍學規」는 이항의 「이산원규」와 같이 큰 조항을 나누지 않고, 16개의 세목으로 서술하였다.

「隱屏精舍約束」은 이이가 1576년에 해주 석담에 은거하여 건립한 隱屏精舍의 원규이다. 1578년 작성된 「隱屏精舍學規」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성된 시기는 1578년(선조 11)에서 이이가 사망한 1584년(선조 17)의 사이로 추정된다. 「隱屏精舍約束」은 『栗谷全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

12) 『明宗實錄』 卷18, 10年 2月 庚寅.

13) 『退溪集』 卷4 「書院十詠」.

14) 『列邑院宇事蹟』 「黃海道·文憲書院創立事蹟」. “文憲公文和公父子, 初祔于文廟, 弘治中牧使鄭誠謹重修鄉校, 倣國學之制, 以文憲公非祀典所載, 立祀宇于鄉校之西, 移安二公焉, 至嘉靖己酉, 我朝明宗大王五年, 周世鵬以監司, 仍舊制設九齋, 請額, 翌年庚戌 賜額, 其後二十二年辛未, 監司朴承任, 牧使韓性源, 移建書院于州西二十里鵲巖川上, 載在海州地誌.”

15) 『栗谷全書』 「年譜」.

16) 『栗谷全書』 卷15, 「隱屏精舍學規【戊寅】」.

17) 『宣祖修正實錄』 卷17, 16年 9月 己卯.

18) 『宣祖實錄』 卷18, 17年 1月 己卯.

략 9가지의 당부를 서술하고 있다.

## 2) 강학 규정의 특징

16세기 서원에서 제정한 학규 중 특징적인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강학활동에서 사용한 강학교재와 장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서원을 운영한 지식인들은 원생들의 교재로써 공부해야 하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으로 나누었다. 이황은 「이산원규」에서 四書五經, 『小學』, 『家禮』, 여러 史書와 子書, 「四勿箴」, 「白鹿洞規」, 「夙興夜寐箴」 등을 공부해야 하는 책으로 거론하였다. 또 류운룡은 莊子, 列子, 老子, 佛教의 서적은 서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sup>19)</sup> 이이도 史學을 제외하고 聖賢의 글이나 性理書가 아니면 齋 안에서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0)</sup> 16세기 지식인은 서원의 강학교재로 經書와 性理書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史書를 활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장서에 대한 규정은 주세붕이 작성한 백운동서원의 조항을 임고서원과 영봉서원에서 답습 또는 일부 확장하여 적용하다가, 이황이 「이산원규」에서 새 조항이 추가하였고, 류운룡이 『吳山志』에 집성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또 영남지역 지식인은 공통적으로 장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포쇄를 당부하였으며, 서원 외부로의 유출을 금지하였다. 장서의 포쇄는 獻官은 齋戒日, 사마소의 有司는 매 절기[每節], 서원의 有司는 每月 주기로 시행하였다. 장서에 대한 규정 중 특징적인 사항은 모든 서원에서 서적의 유출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서적이 매우 귀중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서원의 장서가 서원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 시기 서원의 학규에서는 서적을 판각하거나 인쇄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서원의 강학방법을 보면, 고을의 수령[本官]이 시험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경린은 영봉서원에서 매일 초순과 중순에는 講論을 하고, 종순에는 일과 중에 읽은 부분과 製述한 것을 기록하여 本官에게 알리고, 매 절기마다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sup>21)</sup>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동몽에게 매 10일마다 通講을 하게 하고, 그동안 읽은 것을 通, 略, 粗의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하였다.<sup>22)</sup> 이이는 은병정사에서 매일 초하루에 통독모임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sup>23)</sup> 그리고 문헌서원에서는 유사와 낭독에 다른 학생들이 따라 읽도록 하는 규정하였다.

서원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이황은 도산서원의 원생과 유사에게 서로 예의·공경·신의로 대하도록 하였다.<sup>24)</sup> 이이는 은병정사 원생들의 생활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게 하였다. 원생들은 매일 새벽 4시[五更]에 일어나 침구를

19) 『吳山志』卷3, 「學規·防檢」. “莊列老釋之書, 某局傳奕之戲, 皆不得入院【川谷院規】.”

20) 『栗谷全書』卷15, 「隱屏精舍學規」.

21) 『迎鳳志』「學規錄」. “勸課.”

22) 『吳山志』卷3, 「學規·勸課」. “童蒙每旬通講, 十日內所讀書, 通略粗分等, 上下其食.”

23) 『栗谷全書』卷15, 「隱屏精舍學規」.

24) 『退溪集』卷41, 「伊山院規」.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정리하고 어린 사람은 빗자루로 방안을 쓸었고, 齋直을 시켜 마당을 쓸게 하였다. 이후 세수와 빗질을 하고 의관을 바르게 한 후 廟에 拜謁하고, 강당의 스승께 拜禮를 하고, 동서 뜰에 나누어 서서 차례로 相揖禮를 행하였다. 밥을 먹을 때는 長幼의 차례로 앉고 음식을 가려 먹지 말고, 飽食을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되었다.<sup>25)</sup> 향교의 교생들은 관직자 또는 웃어른에겐 항시 교관의 예로써 대우하여야 하였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았다.<sup>26)</sup> 또 교생은 일어나는 시간과 식전의 독서, 식사하는 시간과 예절 등을 지켜야만 하였다.<sup>27)</sup>

서원의 원생은 식사량이 정해져 있었다. 원생은 5명을 기준으로 供饋하였는데, 2월~8월까지의 아침저녁 각 1升, 9월~1월까지의 7습이었다. 1년 동안 사용한 곡식이 적어도 다른 용도에서 전용할 수 없었다.<sup>28)</sup> 반찬의 비용으로 1년에 잡곡 30石을 넘을 수 없었고, 공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sup>29)</sup> 또 童蒙도 항상 5명을 기준으로 아침저녁으로 각 5습을 주어 1년에 12石을 공궤로 사용하였다.<sup>30)</sup>

서원의 학규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院長, 有司, 院生, 典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인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다. 먼저, 원장은 官, 유사와 유생은 원장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였다. 원장이 작은 잘못을 하면 箴規로 고치게 하고, 큰 잘못을 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논의를 거쳐 관에 보고 후 교체하였다. 유사가 작은 잘못을 하면 원장이 타이르고, 큰 잘못은 꾸짖고, 끝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원장과 서원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여 관에 보고하고 내쫓는다. 행실을 수양하지 않아서 행동에 벗어나거나 위배되는 원생은 그 죄가 가벼우면 원장이 혼내고 무거우면 서원의 사람들이 꾸짖는데, 계속 고치지 않는 원생을 논의하여 내쫓았다. 또한 잘못된 원생을 추천한 사람에게도 벌을 줘서 신진을 이끌고 올 때에 신중하게 하고 가벼이 하지 않도록 하였다.<sup>31)</sup>

25) 『栗谷全書』 卷15, 「文憲書院學規」. “一. 每日五更起寢, 整疊寢具, 少者持箒埽室中, 使齋直埽庭, 皆盥櫛正衣冠讀書. 一. 平明時, 皆以常服【笠子直領或冠巾直領之類, 但不用襦挾直領.】, 詣廟庭, 不開中門, 只再拜【師若在齋, 則亦以常服謁廟.】. 師在講堂, 則就師前行拜禮【師不起立, 只於座上俯答其禮.】, 分立東西相向, 行揖禮【師不在, 則拜廟後出廟門, 分立庭東西, 相向而揖.】.”

26) 『慶州鄉校學令』. “守令及鄉黨尊老先達至校, 諸生行禮如教官...諸生道遇守宰師長或鄉老先達呈身拱手立道左. 守宰師長鄉老先騎馬過行, 諸生如或藏身掩面憚於行禮者罰.”

27) 『慶州鄉校學令』. “每日未明鼓一聲, 諸生起寢平明. 鼓二聲, 正衣冠端座讀書. 鼓三聲, 以次詣食堂座. 食畢以次出失序或喧嘩者罰.”

28) 『吳山志』 卷3, 「學規·養賢」. “入院儒生常供五人通計支供之數, 遂月春鑿別藏一櫃, 如其月儒生不會其春, 米毋得他用. 又春次月之米添藏而供之, 一年之內儒生, 所會之月, 稀罕而春米多積, 亦不得移用於他處. 數年後, 米數即多而儒生於常數外多聚, 則臨時酌定, 雖五員之外量數加餉無妨【屏山院規】. ○按此供饋之規, 甚善二月至八月, 五員供饋朝夕各一升, 九月至正月, 朝夕各七合. 供饋合米二十一石. 當月儒生多會, 供米不足, 則以前月餘米補用, 如無餘米, 則諸生姑令散去, 毋得引用次月之米.”

29) 『吳山志』 卷3, 「學規·養賢」. “餽價一年通用雜穀毋過三十石, 每月二石五斗, 遂月上下, 亦藏於別處儒生多會之月, 則依供米例推移足用【屏山院規】.”

30) 『吳山志』 卷3, 「學規·養賢」. “…… ○按童蒙亦常供五員, 朝夕米, 各五合, 通計一年, 所用米十二石.”; 동몽의 존재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꾸준히 확인된다. 16세기 배용길의 강회에 참여할 때마다 ‘小兒’와 함께 童蒙齋에 우거하였으며, 동몽제의 규모가 15칸이나 되었던 기록, 또 18세기 김성택이 15세의 나이로 호계서원 거점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16세기부터 15세 이하 동몽들을 대상으로 동몽 강학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90쪽.)

31) 『吳山志』 卷3, 「學規·相正」. “院長或過誤行輩間察相箴規 庶幾改行如或所失者 大而不知懺悔 則院中

이와 더불어 뜻과 기운이 쇠하거나 게으른 사람, 鄕任을 역임하여 학문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出院하였다. 그리고 원생 중 春秋 享祀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黜座하였고, 출좌당한 후에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黜院하였다.<sup>32)</sup> 또한 祭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소를 죽일 수 없고, 서원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었으며, 바둑과 장기 등의 놀이도 할 수 없었다.

서원의 경제활동은 주로 學田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나온 이윤을 사용하여 서원이 운영되었다. 사액서원의 경우 나라에서 학전을 下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서원을 건립한 인물이나 배향된 인물의 가문에서 학전을 喜捨하는 경우가 있었다. 7곳의 서원 중 학전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곳은 백운동서원, 영봉서원, 임고서원, 오산서원이었다. 이 서원들은 『죽계지』에 수록된 학전 관련 규정을 준용하였다. 이를 보면 서원의 원장은 매년 11월 학전에서 생산된 작물들을 장부에 기록하였다. 동일한 장부를 여러 권(영봉서원 3권, 오산서원 2권, 임고서원 2권) 만들어 분산·보관하는데, 그중 1권은 官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였다. 寶米도 정월마다 장부를 만들어 학전의 장부와 같이 官에 보고하였다. 이때 반드시 본전은 보존하여 남겨 두고, 그 이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서원전은 鄕校田과 마찬가지로 學田으로 설립됨으로써 면세 규정이 없었던 초기에도 일반적으로는 사액서원에 한해서 서원전 소재 지방관의 수으로 면세되는 것이 상례였다.<sup>33)</sup>

서원의 재정 운영은 有司와 斯文의 감찰을 받았다. 서원의 齋戒日에 米穀과 기타 물품을 회계하며, 享祀日에 여러 사문과 함께 이를 다시 감찰하였다. 영남지역 서원에서는 사마소의 유사와 서원 유사가 감찰행위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호지역 서원에서는 齋直이 재 안의 물건 출납을 주관하고, 유사가 사환과 집기의 유무를 주관하며 모든 물건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전과 함께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부분은 典僕을 꼽을 수 있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의 守直으로 4家を 설정하였고, 이들은 세금과 부역이 면제되었으며 官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sup>34)</sup> 또한 이항은 院屬을 잘 돌봐주며 院과 齋의 공적인 일만 하도록 규정하였다.<sup>35)</sup> 또 典婢는 맡은 일 이외엔 출입을 삼가도록 하였다. 류운룡은 길재의 묘 옆에 서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묘를 수호하는 典僕에 대한 규정도 수록하였다.<sup>36)</sup>

이상과 같이 이미 16세기에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에서는 서원의 강학 활동과 운영의 기준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이후 지역별, 학파별 서원의 강학은 이 시기 제정된 학규를 기반으로 시행되었다.<sup>37)</sup>

共議告官逆之【川谷院規】. 下有司中如有用心蠹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惑濫冒無耻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飾之, 大則院中責之終不自悛者, 院長與院中同議告官黜之【川谷院規】. 入院之士, 如有行實不修, 舉止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 齋議黜之, 所引之人, 亦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而不敢輕舉, ……【川谷院規】.”

32) 『吳山志』卷3, 「學規·防檢」.

33)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217쪽.

34) 『竹溪志』卷5, 「雜錄後·(院規)」. “復守直四家, 人不得役, 官不得奪.”

35) 『退溪集』卷41, 「伊山院規」. “院屬下人, 有司與諸生, 常須愛護,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36) 『吳山志』卷3, 「學規·典僕」. “○書院之作爲先生墓也. 墓下居人寔繁有徒不閑禮義待之, 一失所係非輕, 亦須兼盡恩威務得其心常存永護之計.”

또한 이와 더불어 돈암서원에서는 「靜會堂立議」가 있어 주목된다.<sup>38)</sup> 「靜會堂立議」는 規約으로 1582년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회당입의」는 돈암서원의 전신 정회당(靜會堂)의 운영을 위해 김계휘가 작성한 규약이다. 정회당은 1557년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휘가 고운사에 마련한 강학소이다. 이 입의는 총 11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입학 자격과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이다. 입학 자격은 초시 입격자와 문리해통자를 기준으로 하고 타관인은 3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초입자는 반드시 보거인의 천거를 받도록 하였다. 임원은 유사 2인, 서기승(書記僧)과 고직승(庫直僧) 각 1인을 두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하고, 서책의 유출 및 여색과 잡기도 엄금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에는 ‘초입시 관례에 따라 지례(贄禮)를 행한다.’고 하여, 다른 서원의 규약에서 볼 수 없는 ‘지례’라는 독특한 의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례는 조선시대 사제기간의 연을 맺을 때 행하는 의례의 한 절차로, 일종의 강학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정회당이나 돈암서원에는 지례에 관한 문서가 확인되지 않지만, 충남 연기군의 임헌회를 모신 덕성서원에 서지(書贄) 라는 문서가 남아 있어 지례의 절차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sup>39)</sup> 「정회당입의」는 이후 돈암서원의 학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3. 서원지의 편찬과 서원 지식의 제양상

#### 1) 서원지의 편찬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원이라는 학술기관을 운영하고, 그 기관의 역사와 운영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書院志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서원지는 16세기 조선 지식인의 학술 활동의 기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지식인들이 편찬한 서원지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적 기반, 서원과 관련한 여러 학술 정보가 반영된 지식의 총체적 산물이었다. 나아가 16세기 한국 지식인이 지녔던 사상의 근원을 확인하고, 동아시아 지식사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중 서원지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6세기 한·중의 서원지는 양국 모두에서 현전하는 最古의 서원지라는 점에서 한·중의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과 지식 전승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 자료라

37) 이이의 강학 규정은 서인계를 거쳐 노론, 낙론계의 서원의 학규의 전범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시기별로 해탈 계열의 강학 규정이 체계화, 전문화되었음이 밝혀졌다(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38) 이하 돈암서원의 강학자료는 김자운의 연구(「조선시대 書院 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儒學研究』 48,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9.)를 참고하였다.

39) 이 서지는 1870년에 신익구(申益求)라는 사람이 임헌회에게 제자의 예를 청하면서 올린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처럼 서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물과 함께 서지를 올리면 스승은 그 글을 통해 상대의 수준과 뜻을 살피고, 동시에 자신의 분수와 학덕, 의리를 헤아려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에 제자로 받아 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 신익구는 첫째, 자신이 설립한 공부의 방향을 말하고, 둘째, 현재 자신의 공부가 처한 한계와 임헌회에게 취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백하였으며, 셋째, 임헌회 문하의 학문적 성과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스승을 만나 학문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중국 선현의 사례를 예로 들며, 거친 기질과 유약한 마음의 습성을 고칠 수 있도록 제자로 받아주길 간곡히 청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의 지식인들이 서원지를 편찬하여 서원의 학술 정보를 체계화·지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서원지는 서원강학의 가치 중요성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서원지에 수록된 각 서원의 장서는 해당 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식의 규모를 알게 해 준다.

중국의 지식인이 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모아 서원지를 편찬한 시기는 13세기부터였다. 중국에서 편찬된 서원지는 南宋 歐陽守道(1208~1272)의 『萊山書院志』가 최초로 알려졌으나 현전하지 않는다.<sup>40)</sup> 또한 15세기 『白鹿洞志』도 간행되었던 기록은 있으나, 현재는 失傳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 서원지는 16세기 명의 서원지에서부터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明代 서원의 장서를 살펴볼 수 있는 서원지는 모두 6종이다.<sup>41)</sup>

<표 1> 16세기 明 書院의 장서 현황

	편찬연도	서원지명	장서 목록	種	비고
①	1524년	白鹿洞書院新志	卷8 書籍志 第13	83종	全失 26종
②	1554년	白鹿洞志	卷16 經籍	176종	
③	1578년	百泉書院志	卷1 學約志【書籍附】	27종	
④	1592년	白鹿洞書院志	卷3 人物志【附經史子籍】	193종	
⑤	萬曆年間	虞山書院志	卷6 書籍志	256종	
⑥	(1573	共學書院志	卷上 典籍	42종	
⑦	~1619)	仁文書院志	卷8 書籍	0종	

위 표를 살펴보면 6종의 서원지에서 해당 서원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던 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① 『白鹿洞書院新志』는 8卷 구성이며, 그 중에서 卷8 「書籍志」의 第13에 1524년 백록동서원에서 수장한 83종의 서적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② 『白鹿洞志』는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卷16 「經籍」이 장서록으로 1554년 백록동서원에서 수장한 176종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③ 『百泉書院志』는 모두 3권이며, 그 중 卷1 「學約志」의 부록으로 27종의 장서를 기록하였다.<sup>44)</sup> ④ 『白鹿洞書院志』는 12권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卷3 「人物志」의 말미에 1578년 백록동서원에서 수장한 193종의 장서가 함께 수록되었다.<sup>45)</sup> ⑤ 『虞山書院志』는 모두 10권 구성으로, 卷6 「書籍志」에 256종의 장서가 기록되었다.<sup>46)</sup> ⑥ 『共學書院志』는 上·中·下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卷上 典籍에 42종의 장서가 수록되었다.<sup>47)</sup> ⑦ 『仁文書院志』는 11권

40)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社, 2004, 343쪽.

41) 16세기 명의 서원지는 모두 10종이 현전한다(趙所生·薛正興主編, 『中國歷代書院志』 1~16, 江蘇教育出版社, 1995; 白鹿洞書院古志整理委員會,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出版, 1995, 참조). 16세기 명의 서원지 10종에 대한 편찬 및 체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임근실, 「16세기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韓國書院學報』 13, 한국서원학회, 2021.).

42) 『白鹿洞書院古志五種』 白鹿洞書院新志.

43) 『中國歷代書院志』 第一冊, 五 白鹿洞志.

44) 『中國歷代書院志』 第六冊, 六書 百泉書院志.

45) 『中國歷代書院志』 第一冊, 六 白鹿洞書院志.

46) 『中國歷代書院志』 第八冊, 一 虞山書院志.

의 구성인데, 卷8 「書籍」에 실제 장서의 목록과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卷題만 기록되어 있다.<sup>48)</sup> 따라서 인문서원의 실제 장서 현황은 알 수 없다. ⑦을 제외하고, 명대 서원 장서의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 ①~⑥ 6종의 장서목록을 검토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서 서원지에 장서가 기록한 서원은 白雲洞書院과 迎鳳書院이다.<sup>49)</sup> 16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서원지는 백운동서원의 『竹溪志』, 영봉서원의 『영봉지』, 오산서원의 『吳山志』로 모두 3종이 확인된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양난 이전의 자료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만이 도서관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sup>50)</sup> 이 때문에 다수의 서원은 장서록을 남길만한 장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16세기 조선 서원지에 나타나는 장서 현황을 기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16세기 朝鮮 書院志의 장서

	편찬연도	서원지명	장서 목록	種	비고
①	1545년	竹溪志	卷4 藏書錄	43종	
②	1559년	迎鳳志	藏書錄	55종	
③	1588년	吳山志		0종	

위의 표를 살펴보면 오산서원의 경우 서원의 장서를 서원지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16세기 조선 서원지의 장서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운동서원[紹修書院]의 『죽계지』 「藏書錄」, 영봉서원[迎鳳書院][川谷書院]의 『영봉지』 「장서록」의 2종이다.<sup>51)</sup> 중국 서원의 장서 ①~⑥와 한국 서원의 장서 ①~⑥에 대한 개별 목록은 부표로 표기한다.

## 2) 서원 지식의 제양상

16세기 한·중 서원지에서 나타나는 양국 서원의 강학 교재[장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중 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강학 교재를 비교 대조하여 한·중 서원 강학 교재와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47) 『中國歷代書院志』第十冊, 三 共學書院志.

48) 『中國歷代書院志』第十冊, 二 仁文書院志.

49) 명 서원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의 장서는 ①로, 영봉서원의 장서②로 표기하였다. 백운동서원과 영봉서원의 장서는 별도의 사부분류없이 기록되었는데, 전체 서적의 분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四庫全書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분류에 근거하여 필자가 분류하였다.

50)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26쪽.

51) 이외에도 16세기 조선에서는 서원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4종의 더 있다. 濫溪書院의 『書院褒寶錄』, 陶山書院의 『書冊秩』, 易東書院의 『易東書院記』 「書冊」, 玉山書院의 『書冊置簿』이다. 즉, 서원지에 수록된 장서록은 2종[백운동, 영봉]이고, 필사본 형태의 서책 목록은 3종[도산, 역동, 옥산]이며, 서원에 기증된 물품에 장서가 포함된 목록은 1종[남계]이다. 먼저 6개소의 서원과 『攷事撮要』 「書冊市准」의 書種을 비교하여 약 240여 種의 서책을 확인하였다. 개별 서원의 장서 목록과 240종의 서목에 대한 정보는 앞서 진행한 연구를 참고할 것(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研究」, 『韓國書院學報』 4, 한국서원학회, 2017, 93~100쪽, 부록).

먼저, 기증받은 도서와 보유한 책판을 통하여 서원 지식의 유입과 보급을 확인할 수 있다. 명 백록동서원은 많은 수의 서적을 기증받았고, 이는 지식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증자의 직위와 성명, 서명, 수량 등을 기록하였다. 백록동서원은 1553년 서적을 기증받았고, 이듬해 鄭廷鵠은 『백록동지』를 편찬하였다. 기증자는 모두 8명으로 백록동서원이 소재한 江西省과 南康府의 학관 및 관료였다. 이때 백록동서원에서는 해당 시기 장서의 약 35%를 기증받았던 것이며, 이때 사부의 서적을 골고루 기증받았다. 따라서 백록동서원의 지식인들이 지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장서 중 3분의 1 이상이 유입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sup>52)</sup>

또한 명 백록동서원과 공학서원에서는 각기 9종의 刻板을 수장하여 서원에서 지식을 보급하였던 출판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명 서원지의 장서 목록에선 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鑲板을 확인할 수 있다.<sup>53)</sup> 백록동서원은 9종의 서적(『易經』, 『書經』, 『春秋』, 『禮記』, 『五禮圖』, 『史記』, 『遵道錄』, 『伊洛淵源』, 『重修白鹿洞志』)의 刻板을 보유하여 해당 서적을 인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책판의 제작자도 표기하였다. 邵寶가 『易經』, 『書經』, 『春秋』, 『禮記』의 책판을 제작하였고, 田汝耜가 五禮圖와 『史記』를, 王崇慶이 『遵道錄』을, 高賁亨이 『伊洛淵源』을, 鄭廷鵠과 張純發이 『重修白鹿洞志』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按察司가 『사기』의 책판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어,<sup>54)</sup> 서원에서 수장한 장서뿐만 아니라 책판도 외부로 이동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55)</sup> 이와 더불어 鄭廷鵠과 張純發은 백록동서원에 다량의 서적을 기증한 기증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적의 기증자와 책판의 제작·기증자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공학서원에서도 9종의 서적을 인출하여 서적을 보급할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白沙緒言 15片, 困辯錄 68片, 樂舞譜 49片, 講堂歌選 30片, 共學記 19片, 聖學圖說 9片, 餐微集 16片, 觀生堂草 21片, 共學書院志의 刻板을 수장하였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백록동서원과 공학서원은 모두 해당 서원의 서원지 각판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 명 서원의 경우 서원지의 목판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원지를 인출해 지역사회에 서원 지식을 보급하였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둘째, 地理志의 유행과 『大明一統志』의 한국 유입을 통한 서원 지식의 체계화. 『대명일통지』는 중국 각 지역의 주요한 정보를 담았는데, 이때 서원의 현황과 간략한 정보를 부기하였다. 따라서 『대명일통지』는 중국의 서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적이었다. 조선에선 15세기 말엽 明의 사신이 受贈하여 『대명일통지』가 수입되었다.<sup>56)</sup> 이 서적은 중국 서원의 현황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 사

52) 임근실, 「16세기 明 白鹿洞書院 藏書의 특징과 의미」, 『서강인문논총』 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0~142쪽.

53) 『白鹿洞志』 卷16, 「書籍·鑲板」; 『共學書院志』 卷上, 「典籍」.

54) 『白鹿洞志』 卷16, 「書籍·鑲板」. “按察司取去”.

55) 임근실, 위의 논문, 2020, 142쪽.

56) 현존하는 조선본 『大明一統志』는 현재 일본에 있는 乙亥字本이다(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05쪽.).



이에서 중국 서원과 관련한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었다. 조선의 영봉서원을 설립한 노경린은 『迎鳳志』의 書院錄에 『대명일통지』에서 採錄한 중국 서원의 정보를 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서원과 관련한 지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중국 서원과 관련한 지식 정보가 『영봉지』를 매개체로 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파 및 확산되었다.<sup>57)</sup> 따라서 조선에서 『대명일통지』와 『영봉지』는 서원 지식의 유입 및 수용, 전파와 확산의 단계를 충실히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 16세기 한·중의 지식인들이 서원에서 소장한 서적을 비교하여, 이들이 공유했던 지식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다. 현재까지 16세기의 조선에서 중국의 서원지가 수입 또는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6세기 한·중의 지식인들이 운영했던 지식기관인 서원을 연구함에 있어 두 나라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6세기 한·중의 지식인들이 공유하였던 지식의 확인은 그들이 서원에서 소장했던 서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앞서 16세기 명 서원지 6종[① 『白鹿洞書院新志』(1524), ② 『白鹿洞志』(1554), ③ 『百泉書院志』(1578), ④ 『白鹿洞書院志』(1592), ⑤ 『虞山書院志』(萬曆年間), ⑥ 『共學書院志』(萬曆年間)]과 조선 서원지 2종[⑦ 『竹溪志』(1554), ⑧ 『迎鳳志』(1559)]에 수록된 서원 장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② 『白鹿洞志』(1554)의 사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명과 조선의 공통 장서를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시기와 명확성이다. 첫 번째 이유는 1554년에 편찬된 ②가 16세기 중엽 명 서원의 서적 소장 현황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조선에서도 서원의 서적을 소장한 기록이 담겨있는 『죽계지』와 『영봉지』가 편찬되었던 때이다. 따라서 ②의 장서 목록은 조선에서 서원지가 편찬되고, 서원의 장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와 동일하다. 두 번째 이유는 ②의 편찬자가 백록동서원의 장서를 經史子集의 사부 분류에 의거하여 기록하였기에 분류가 명확하다는 점이다.<sup>58)</sup> 그리고 ⑤의 경우는 사부보다 더욱 자세한 11부로 우산서원의 장서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명대 지식인의 지식 분류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②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⑤의 분류도 기록하였다.

16세기 한·중 서원지에서 나타나는 서원의 장서들을 대조하여 22種의 공통 서목을 추출하였다. 이 22종의 서적은 16세기 한·중서원에서 각 나라별 1개소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소장한 서적이며, 앞서 이야기한 ②의 사부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57) 임근실, 「16세기 嶺南地域 書院」,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04~105쪽.

58) 16세기 백록동서원지에 나타나는 四部 분류는 편찬자에 따라 같은 서적도 다른 部로 분류하였다. 서원의 지식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시기와 편찬자에 따라 상이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17세기에 편찬된 백록동서원지는 사부 분류를 사용하지 않았고, 18세기 頒賜된 서적을 서두에 기록하고 이후 기증자에 따른 기증목록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임근실, 앞의 논문, 2020, 138~139쪽).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6세기 명 서원에서 지식의 분류법을 활용하였던 것을 확실하다. 그렇기에 16세기 한·중 서원의 공통서목을 비교함에 있어 1554년 『백록동지』의 분류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 더불어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한·중 서원의 지식 분류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16세기 한·중 서원지 장서의 공통 서목

	서명	明						朝鮮		수량
		①	②	③	④	⑤	⑥	㉠	㉡	
聖製	性理大全	○	○	○		理學部		○	○	2종
	四書大全	○	○	○	○	經部		論語 孟子	論語 孟子	
經部	易經大全	○	○		○	○		○	○	7종
	書經大全	○	○		○			○	○	
	詩經大全	○	○					○	○	
	春秋胡傳		○		○	○		○	○	
	春秋左傳		○		○				○	
	(朱子)小學					理學部		○		
	韻府群玉					詩部		○	○	
史部	後漢書	○	○	○		○	○		○	2종
	(溫公)通鑑					○		○	○	
子部	朱子大全		○		子集			○		5종
	伊洛淵源		○		子集	理學部		○	○	
	近思錄					理學部		○	○	
	朱子語類					理學部		○		
	陶靖節集		○		子集	詩部			○	
集部	(宋)名臣言行錄		○			經濟部		○		6종
	文選					文部		○		
	(韓)昌黎集					文部		○	○	
	大學衍義	子部		○		經部		○		
	(古今)韻會				子集				○	
	柳文				子集				○	
		7	12	4	10	16	1	17	16	22종

22종의 서적 중 聖製는 2종으로 『性理大全』과 『四書大全』, 경부는 7종으로 『易經大全』, 『書經大全』, 『詩經大全』, 『春秋胡傳』, 『春秋左傳』, 『小學』, 『韻府群玉』이다. 사부는 2종으로 『後漢書』, 『通鑑』이다. 자부는 6종으로 『朱子大全』, 『伊洛淵源』, 『近思錄』, 『朱子語類』, 『陶靖節集』이다. 집부는 6종으로 『(宋)名臣言行錄』, 『文選』, 『(韓)昌黎集』, 『大學衍義』, 『(古今)韻會』, 『柳文』이다. 이상 공통 서적 중에서 ① 백록동서원에선 7종, ② 백록동서원에서 12종, ③ 백천서원에서 4종, ④ 백록동서원에서 10종, ⑤ 우산서원에서 16종, ⑥ 공학서원에서 1종, ㉠ 백운동서원에서 17종, ㉡ 영봉서원에서 16종을 소장하였다. 이 서적들이 16세기 한·중 서원에서 소장된 사항 및 서적의 정보, 조선에서 유입되거나 조선 내부에서 전파되었다.

16세기 한·중의 서원에서 공통으로 소장했던 서적 중 『性理大全』, 『四書大全』, 『小學』, 『朱子大全』, 『伊洛淵源』, 『近思錄』, 『朱子語類』, 『名臣言行錄』 등은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영향력을 끼쳐 16세기 조선 학술사의 중요한 지위를 가졌다. 이를 통해 16세기 서적을 매개로 한 지식의 유입 및 보급, 전파, 확산, 수용과 관련한 양상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성리학 서적의 보급으로 지식 계보인 道統이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서적 중 일부는 19세기 영남지역 지식인들의 서원 강학 교재로도 확인된다.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서 활용된 주요 교재는 『주자서절요』, 『옥산강의』, 『연평답문』, 『중용』 등 모두 ‘위기지학의 공부론’, ‘마음공부를 통한 일상에서의 실천’에 초점은 둔 것으로,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이 ‘실천적 공부론’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남지역 퇴계학의 일파를 이룬 이상정의 학문, 즉 ‘호학’의 심학적 경향과 실천적 학풍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었다.<sup>59)</sup> 따라서 16세기 서원의 장서가 19세기까지 서원의 강학 교재로 꾸준히 활용되었던 것이다.

16세기 한·중의 지식인들은 서원지를 편찬하면서 그들의 지식계보인 道統을 나타내었다. 한·중 지식인들이 정립한 지식계보는 서원지에 기록된 장서의 순서에서도 확인된다.

명의 백록동서원은 장서를 기록하는 순서에서 자신들의 지식 계보를 보여주었다.<sup>60)</sup> 백록동서원의 장서는 주희의 저서를 중시하여 사부별로 가장 앞서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經部의 경우엔 주희가 저술한 本義와 集註를 1순위로 기록하였고, 史部는 『통감강목』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즉, 주희의 성리학설이 반영된 저술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자부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二程子부터 張載, 楊時, 朱熹, 呂祖謙, 陸九淵의 저술을 우선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육구연의 다음에 쯤나라 陶潛의 서적부터 시기순으로 기록하였다. 16세기 백록동서원의 지식인은 장서목록에서도 주희를 중심으로 한 지식 계보를 표방한 것이다.<sup>61)</sup> 이와 연결하여 조선 서원지에서도 성리학적 지식이 포함된 다종의 서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오산지』에선 지식계보인 道統을 명시한 기록이 있었다.<sup>62)</sup>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16세기 한·중의 서원지는 지식 계보를 포함하였으며, 당시 지식의 集積, 유통 및 보급의 여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 4. 결론

조선시대 지식인은 學規를 제정하여 서원의 강학 활동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16세기 조선에선 서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서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확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여 조선식으로 정착시켰고, 서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學規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제도였던 서원을 점차적으로 시대와 환경에 맞게 조선식으로 정

59) 김자운,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학의 특징과 퇴계학의 분화 - ‘호학(湖學)’의 계승과 분화를 중심으로 -」, 『退溪學論集』 19, 퇴계학연구소, 2016, 355~356.

60) 16세기 조선의 지식인은 성리학적 지식 계보인 道統을 조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후 서원에도 반영하였다. 특히 이항의 제자인 류운룡은 오산서원의 서원지인 『吳山志』에 퇴계학파의 도통론을 표명하였다.(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도통의식 - 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이경동, 「16세기 도통론의 전개와 포은 정몽주의 위상」, 『圃隱學研究』 17, 포은학회, 2016, 참조.).

61)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136~137쪽.

62) 임근실, 위의 논문, 2020, 163~166쪽.

립해나가려 한 조선 지식인의 노력이 서원의 학규에서 발현되었다. 조선시대 지식인은 서원의 강학 활동을 실제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경험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세부화된 學規를 제정하게 하였다. 이 시기 지식인들은 다양한 체제와 형식으로 서원의 원규를 제정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점차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시대 지식인은 서원의 人的構成을 院任[院長·有司], 院生[院生, 寓生, 童蒙] 등으로 분류하였다. 院任에서 영남지역 지식인은 원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上有司를 사용하였고, 기호지역 지식인은 院任에 堂長, 掌議, 直月을 둔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영남지역 지식인은 서원의 원생 가운데 寓生과 童蒙을 두었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처럼 영남지역의 이항과 기호지역의 이이가 제정한 서원의 강학 규정은 이후 조선 서원의 典範이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지식인이 서원지를 매개로 서원의 학술 정보와 지식을 집적하고 유통 및 보급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즉, 서원의 강학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의 장서를 검토하여 지식사적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이때 동아시아 지식사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 서원 강학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중국 서원지와 비교 검토를 통해 한국 서원의 강학 교재[장서]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중 중국의 地理書 유행과 그에 따른 『大明一統志』의 한국 유입 및 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대명일통지』는 중국의 서원 지식을 한국에 보급한 서적이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에선 중국의 서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정립하여 서원지(『迎鳳志』)에 수록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性理書의 보급과 그에 따른 道學[道統]의 계보가 서원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한 점이다. 서원의 강학 활동에서 道脈과 學脈의 계승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원의 강학 규정, 교재, 의례 등 서원의 강학 활동과 관련한 여러 요소에서 道統과 學統의 계승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즉,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유래한 서원을 한국식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강학의 규정, 교재, 의례 등 여러 요소에서 서원의 지식을 정비하고 이를 계승발전해 나갔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영남대학교 民族文化研究所, 1979.

### 2. 학위논문

金紫雲,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 연구 논문

강경모, 「尙州의 書院文化-教育을 中心으로-」, 『향토경북』 10, 경상북도향토사연구협의회, 2012.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講會와 학술 활동」,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2003.

금장태, 「白鹿洞規圖 와 退溪의 書院교육론」, 『退溪學』 11, 安東大學校退溪學研究所, 2000.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 교육사학회, 2006.

김대식, 「朝鮮 書院 講學 活動의 性格-會講과 講會를 中心으로」, 『교육 사학연구』 11, 교육사학회, 2001.

김문기, 「서원 교육과 신재 주세붕」,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05.

김자운, 「19세기 소수서원 『중용』 강회의 특징과 퇴계학의 분화 -‘호학(湖學)’의 계승과 분화를 중심으로-」, 『退溪學論集』 19, 퇴계학연구소, 2016.

김자운, 「16세기 紹修書院 教育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58, 한국유교학회, 2014.

김자운, 「조선시대 書院 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儒學研究』 48,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9.

김자운, 「조선시대 書院教育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紹修書院 事例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역사문화학회, 2015.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儒學研究』 55,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1.

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람과 임고서원」, 『圃隱學研究』 6, 포은학회, 2010.

문태순,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성격 연구」,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20-1,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04.

박종배, 「남계 朴世采의 書院 教育 사상과 실천」, 『교육사학연구』 24-2, 교육사학회, 2014.

박종배, 「屏山書院 教育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2, 교육사학회, 2008.

박종배, 「學規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書院 講會」, 『교육사학연구』 19-2, 교육사학회, 2009.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대한 일고찰」,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배현숙,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46, 대동한문학회, 2016.

서신혜, 「景玉 李甫의 서원교육관과 그 시대적 의미」, 『退溪學과 韓國文化』 35-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4.

- 오항녕, 「朝鮮中期 學術振興과 鶴山書院」 『인천학연구』 2-1,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3.
-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 韓國書誌學會, 2005.
-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이선아, 「18세기 考巖書院의 건립과정과 講會 및 追享의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37,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이근명, 「12세기 兩浙 일대의 書院과 讀書人」, 『中國史研究』 119, 중국사학회, 2019.
-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보, 2015.
- 이수환, 「安東과 徽州의 書院教育 比較 研究」, 『안동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휘대학 휘학연구중심, 2006.
- 임근실, 「16세기 明 白鹿洞書院 藏書의 특징과 의미」, 『서강인문논총』 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임근실, 「16세기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2021.
-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도통의식 - 金烏書院과 巖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장품단·김홍수(譯), 「주희 서원교육 사상에 대한 이항의 계승과 발전- 白鹿洞書院 揭示 를 중심으로-」, 『안동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12.
- 정순우, 「韓國 初期 書院의 教育史的 意義」,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조국권, 「‘중문’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관행에 대한 고찰」, 『韓國書院學報』 5, 한국서원학회, 2017.
-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 『韓國學論叢』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최광만, 「19세기 서원 講學 活動 사례 연구- 虎溪講錄 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교육사학회, 2012.

## 부록

### ①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白鹿洞書院新志』)

區分	書名		소계
經部	易經大全 10本	書經大全 5本	11종 (3종 全失)
	詩經大全 8本	春秋大全 12本	
	禮記大全 10本	周禮集說 1部(全失)	
	儀禮集說 1部(全失)	儀禮經傳通解 1部(全失)	
	大戴禮記 2本	禮書 2本	
	樂書 2本		
子部	四書大全 10本 內殘失1本	性理大全 20本 內殘失2本	25종 (6종 全失)
	張子語錄 1本	經學理窟 10本	
	朱子三書 3本	朱子語略 4本	
	晦庵文集 40本	象山語錄 2本	
	象山文集 4本	六經正誤 1部(全失)	
	東萊讀書記 2本	西山讀書記 30本 內殘失5本	
	呂氏春秋 4本	白雲讀書叢說 2本	
	程氏分年讀書日程 1部(全失)	說文解字 1部(全失)	
	論衡 6本	劉向說苑 2本	
	白虎通 2本	風俗通 1部(全失)	
	女教 1部(全失)	列女傳 1部(全失)	
	大事記通釋 1本	存心錄 5本	
	大學衍義補 40本		
史部	國語 4本	史記 20本	31종 (12종 全失)
	前漢書 1部(全失)	後漢書 1部(全失)	
	三國志 16本 內殘失13本	晉書 40本 內殘失5本	
	南史書 1部(全失)	北史書 1部(全失)	
	宋書 1部(全失)	南齊書 12本	
	梁書 10本	陳書 1部(全失)	
	魏書 1部(全失)	北齊書 8本	
	後周書 10本	隋書 20本 內殘失4本	
	唐書 50本 內殘失17本	五代史 1部(全失)	
	南唐書 2本	天文志 1部(全失)	
	宋史 100本 內殘失2本	元史 40本 內殘失37本	
	古史 6本 內殘失4本	讀史管見 10本	
	通鑑綱目 37本 福建板	續通鑑綱目 28本 南昌府板	
	通鑑紀事本末 42本	通鑑問疑 1部(全失)	
	鄂國金陀粹編 1部(全失)	平宋錄 1本	
	大明一統志 1部(全失)		
集部	玉海 80本 內殘失1本	文獻通考 60本 內殘失2本	16종 (5종 全失)
	通志略 120本 內殘失4本	兩漢詔令 1部(全失)	
	古樂府 1部(全失)	文章正宗 21本全 內殘失1本	
	雅頌正韻 1部(全失)	李太白詩集 6本	
	陸一居士集 5本	文髓 2本	
	國朝文類 1部(全失)	六書統 16本 內殘失9本	
	書學正韻 16本 內殘失9本	洪武正韻 1部(全失)	
	保齋策 2本	抑庵文集 20本 內殘失3本	
合計	83종 (26종 全失)		

②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 목록(『白鹿洞志』)

區分	書名		소계
聖製	四書大全 10	易經大全 10	17종
	書經大全 5	詩經大全 8	
	春秋大全 12	禮記大全 10	
	性理大全 17	皇明政要 2	
	大明律 2	存心錄 5	
	洪武正韻 5	孝順事實 2	
	爲善陰騭 2	大明一統志 24	
	大明會典 50	古今列女傳 2	
	明倫大典 12		
經部	五經白文 6	四書集註 5	32종
	論語註疏 2	孟子註疏 3	
	四書訓測 7	易經本義 3	
	易經註疏 3	古易訓測 5	
	書經集註 2	書經註疏 4	
	詩經集註 3	詩經註疏 10	
	春秋胡傳 5	春秋註疏 12	
	春秋左傳 4	公羊註疏 4	
	穀梁註疏 12	禮記集說 8	
	禮記註疏 12	周禮註疏 8	
	儀禮註疏 6	儀禮集說 8	
	儀禮通解 40	二禮通解 10	
	孝經註疏 2	孔子家語 1	
	大戴禮 2	爾雅註疏 2	
	禮書 12	樂書 12	
	六經總圖 6	六經正誤 4	
史部	通鑑綱目 3部 42	史記 20	29종
	紀事本末 42	古史 6	
	呂氏春秋 5	前漢書 26	
	後漢書 24	三國志 15	
	晉書 40	南史 16	
	南齊書 12	梁書 10	
	北史 24	北齊書 8	
	周書 10	隋書 20	
	唐書 50	唐鑑 4	
	南唐書 2	宋史 100	
	宋元綱目 7	元史 50	
	管見 10	通志畧 120	
	江西通志 20	增城志 4	
	新泉精舍志 4	白鹿洞志 4	
	新增白鹿洞志 4		
子部	二程子全書 10	程氏遺書 4 (外書 1)	64종
	分類遺書 5 (外書 1)	橫渠理窟 1	
	張子語錄 1	龜山語錄 1	
	朱子大全 40	晦翁文集 40	
	大儒奏議 2	朱子語畧 4	
	大全私抄 6	朱子三書 3 (今失)	
	朱子語錄 4	東萊讀書記 2	
	象山文集 4	象山粹言 3	
	象山語錄 2	象山語要 2	
	陶靖節集 2	范文正公年譜 1	
	南豐文集 8	延平問答 1	



	豫章文集 2	蘇文忠公集 15	
	赤壁賦冊葉 1	李旴江集 6	
	道園學古錄 6	讀書叢說 2	
	誠意伯瑯琊運錄 1	王抑庵集 17	
	胡敬齋集 2	居業錄 1	
	胡子粹言 1	吳康齋集 2部 各4	
	何椒丘集 4	陳白沙集 2	
	瓊臺會稿 6	甘泉文集 20 (壞本)	
	體認天理通 3	李空同集 6	
	張文忠公奏疏 5	陽明全集 24	
	東洲初稿 6	東湖文集 4	
	紀遇集 2部 各6	思問錄 2部 各1	
	南野文集 10	篁溪講義 1	
	張氏族約 2部 各1	李太白詩 7	
	黃山谷詩 4	東鄉集 2部 共4	
	存思錄 2部 共2	春秋繁露 1	
	伊洛淵源 2	上蔡語錄 1	
	遵道錄 2	二業合一訓 1	
	致道繹 1	增補白鹿洞志 4	
	徐宗主太極圖測 2	定性書繹 2部 各1	
集部	文獻通考 60	玉海 80	34종
	國語 4	白虎通 3	
	說苑 4	論衡 6	
	西山讀書記 30	大學衍義補 40	
	文廟通考畧 1	宋名臣言行錄 10	
	皇明名臣錄 2	群忠事畧 1	
	青田三傳 1	今獻彙言 8	
	文章正宗 3部 16	續文章正宗 6	
	文翰大成 64	秦漢書疏 7	
	初學記 12	六書統16	
	書學正韻 16	宛洛志樂 12	
	武經總要 16	皇明文衡 20	
	保齋策 2	皇明登科錄 4	
	憂遊記 1	冬遊記 1	
	白鹿課士錄 7/ 13/ 1	唐律類抄 2	
	赤城詩 14	濂洛風雅 2	
	石鐘山集 2	詩話總龜 10	
合計	176종		

③ 명 백천서원의 장서

區分	書名	소계
(經)	四書大全            五經大全	3종
	性理大全	
(史)	資治通鑑綱目        續資治通鑑	19종
	史記	
	前漢書 24冊        後漢書 24冊	
	三國志                晉書 30冊	
	宋書 30冊            南齊書 12冊	
	梁書 10冊            陳書	
	魏書 30冊            北齊書 8冊	
	周書 30冊            隋書 15冊	
	唐書 48冊            五代史 8冊	
	宋史                    元史 40冊	
(子集)	文章正宗            大學衍義	5종
	文章正宗鈔 4冊    大學衍義補	
	六子	
合計	27종	

④ 명 백록동서원의 장서(『白鹿洞書院志』)

區分	書名	소계
聖製	大明律 1本 存心錄 5本	8종
	洪武正韻 5本 孝順事實 2本	
	爲善陰騭 2本 大明一統志 24本	
	大明會典 50本 明倫大典 12本	
經部	易經大全 10本 易經本義 3本	36종
	古易訓測 5本 易經正義 4本	
	書經大全 5本 書經註疏 4本	
	書經正義 3本 少1本 詩經集註 3本	
	詩經註疏 10本 春秋註疏 12本	
	春秋左傳 4本 春秋公羊註疏 4本	
	穀梁傳 ?本 春秋胡傳 5本	
	又 春秋左傳 15本 禮記正義 8本	
	禮記集說 8本 禮記註疏 12本	
	周禮註疏 8本 儀禮註疏 6本	
	儀禮集說 8本 儀禮通解 4本	
	二禮通解 10本 大戴禮 2本	
	禮書 12本 樂書 12本	
	六經正誤 4本 五經正文 8本	
	孔子家語 1本 四書大全 10本	
	內缺大學孟子	
	四書集註 5本 論語註疏 2本	
	孟子註疏 3本 爾雅註疏 2本	
	武經總要 【16本 少七本】	
史部	通鑑綱目 戰國策 2本 【2部內 1部42本全 一部不全】	40종
	史記 20本 紀事本末 42本	
	古史 6本 後漢書 24本	
	前漢書 26本 晉書 40本	
	南史 16本 南齊書 12本	
	梁書 10本 北史 24本	
	北齊書 8本 周書 10本	
	隋書 20本 唐書 50本	
	唐鑑 4本 南唐書 2本	
	五代史8本 宋史 100本 內少2本	
	宋元綱目 7本 元史 50本	
	管見 10本 通志略 【120本 內失1本】	
	江西通志 20本 增城志 4本	
	新泉精舍志 3本 寧波府志 16本	
	南康府志 4本 虔台志 6本	
	崇德縣志 2本 零都縣志 2本	
	都昌縣志 1本 龍南縣志 1本	
	宋名臣言行錄 12本 群忠事略 1本	

	江西大志 4本	太平府志 5本	
	三遷志 4本	評史抄論 2本	
子集部	賈太傅新書 2本	論衡 6本	109종
	古今列女傳 2本	兩漢奏議 4本	
	陶靖節集 2本	韓昌黎文 8本	
	柳文 10本	又 柳文 8本	
	歐文忠集 24本	趙清獻集 4本	
	黃山谷集 4本	山谷刀筆4本	
	蘇文忠公集 15本	又 蘇文 30本	
	司馬公集 12本	二程全書 10本	
	二程遺書 4本 外書 1本	分類遺書 5本 外書 1本	
	龜山語錄 2本	上蔡語錄 2本	
	南豐文集 2本	延平問答 1本	
	朱子大全 40本	朱子語略 4本	
	晦翁文集 40本 少12本	象山文集 4本	
	象山粹言 3本	象山語錄 2本	
	象山語要 1本	羅豫章文集 2本	
	遵道錄 2本	文章正宗 16本	
	續文章正宗 2本	濂洛風雅 2本	
	伊洛淵源 3本	文獻通考 60本	
	玉海 80本	文翰大成 64本	
	六書統 16本	書學正韻 16本	
	皇明政要 ?	秦漢文抄 12本	
	皇明文衡 20本	皇明登科錄 4本	
	薛文清公要語 1本	保齋策 2本	
	李旴江集 6本	道園學古 6本	
	讀書叢說 2本	大儒奏議 2本	
	大全私抄 6本	王抑庵集 17本	
	胡子粹言 1本	吳康齋集 2本	
	胡敬齋集 1本	居業錄 1本	
	何椒丘集 8本	湛甘泉集 20本	
	體認天理通 3本	李空同文集 6本 少3本	
	王襄敏公集 3本	陽明全集 24本	
	霍文敏集 10本	張文忠公奏疏 5本	
	東湖子集 4本	紀遇集 6本	
	東洲初稿 6本	思問錄 2本	
	南野文集 10本	二業合一錄 4本	
	棠陵詩集 4本	羅念庵集 8本	
	胡莊肅公集 13本	瑞鶴堂詩稿 ?	
	定性書釋 2本	太極圖則 2本	
	會稽三賦 1本	正學編 1本	
	雙泉雜記 1本	赤城集 9本	
	葉子書稿 1本	安福業錄 3本	
	詞海遺珠 1本	重訂石門集 2本	
	今獻彙言 8本	宛洛志樂 12本	
	夏遊記 1本	冬遊記 1本	
	唐律類抄 2本	詩話總龜 10本	

	梅田遺稿 2本	芝園集 10本	
	潘簡肅公集 4本	滕王閣集 2本	
	條例備考 30本	古今韻會 10本	
	讀書錄抄 2本	瓊臺會稿 6本	
	藝林 4本	唐宋七言詩 4本	
	正揚 2本	忠武錄 2本	
	本洲初稿 6本	經學理窟 1本	
	辨惑臆說 1本	萬曆癸卯夏 蒙	
	按院吳發書貳部	諸儒語要 4本	
	訓士錄 10本		
	193종		

⑤ 명 우산서원의 장서

區分	書名		소계
聖製	存心錄	孝順事實	11종
	大明會典	大明律	
	皇明詔令	大明一統志	
	御製文集	明倫大典	
	洪武正韻	爲善陰鷲	
	皇明制書		
典故	六部職掌	憲章錄	8종
	昭代典則	吾學編	
	皇明政要	皇明諸司職掌	
	諸司條例	徵吾錄	
經部	四書大全	易經大全	25종
	書經	詩經	
	春秋	禮記	
	四書集註	五經集註	
	五經全傳	孔聖全書	
	十三經注疏	孔子家語	
	國語	四書全傳	
	春秋胡傳	孝經	
	毛詩鄭箋	大戴禮	
	考工記	夏小正	
	伊川易傳	楊氏易說	
	大學衍義	大學衍義補	
	東坡易解		
子部	三子口義	六子全書	20종
	老莊翼	管韓全書	
	晏子春秋	管子全書	
	子彙	呂氏春秋	
	賈太傅新書	陸賈新語	
	淮南子	劉向說苑	
	劉向新序	孔業子	
	韓詩外傳	太玄經	
	元經	孫武子	
	桓譚新論	王玄論衡	
史部	朱子綱目	宋元綱目	36종
	溫公通鑑	宋元通鑑	
	戰國策	史記	
	前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史	南齊書	
	梁書	北史	
	北齊書	後魏書	
	周書	隋書	
	陳書	唐書	
	新唐書	貞觀政要	
	南唐書	五代史	
	宋史	元史	
	路史	皇明通紀	

	通志	汲冢書	
	風俗通	南畿志	
	白虎通	吳地記	
	蘇州府志	常熟縣志	
理學部	性理大全	橫渠理窟	54종
	周張二子全書	邵子全書	
	二程全書	楊龜山語錄	
	上蔡語錄	延平答問	
	朱子全集	朱子語類	
	朱子學的	朱子當機錄	
	伊洛淵源	近思錄	
	朱子小學	文公家禮	
	象山全集	楊慈湖遺書	
	象山語錄	南軒語錄	
	白鹿洞講義	洞學啓蒙	
	傳習錄	張子韶格言	
	吳康齋集	胡敬齋集	
	閩南學道淵源錄	居業錄	
	陽明則言	方正學遜志齋集	
	陽明年譜	羅念庵集	
	薛文清讀書錄	識仁編	
	學道紀言	陳白沙文編	
	西齋日錄	聖學宗傳	
	薛文清要語	明儒經翼	
	程門微旨	王文成文錄	
	朱子節要	見羅書要	
	魏莊渠遺書	寓燕日課	
	宗聖譜	王龍谿文錄	
	經言枝指	王心齋語錄	
	羅念庵冬遊記	趙文肅集	
	?恭定集	陸砂證學記	
文部	文選	文章正宗	22종
	文粹	文苑英華	
	秦漢文抄	續文章正宗	
	名世文宗	韓昌黎集	
	陽明全集	柳柳州集	
	歐文忠集	蘇東坡全集	
	三蘇評林	荊川集	
	八大家文選	楊升菴集	
	續四部稿	弇州四部稿	
	弇州別集	左編	
	右編	文編	
	稗編		
詩部	陶靖節集	古詩類苑	13종
	杜工部全集	詩刪	
	唐詩品彙	李翰林全集	
	唐詩正聲	詩紀	
	白樂天全集	李空同集	
	李滄溟集	皇明十二家	
經濟部	韻府群玉		31종
	皇明疏抄	朱子奏議	

	歷代名臣奏議	大儒奏議	
	鹽鐵論	陸宣公奏疏	
	虎鈴經	天文集要	
	包孝肅奏議	武經七書	
	經濟類編	宋名臣言行錄	
	右編	齊民要術	
	皇明名臣言行錄	皇輿圖考	
	九邊圖考	皇明經濟錄	
	修攘通考	籌海圖編	
	經世實用編	江南經略	
	紀效新書	海防一覽	
	經世格要	水利全書	
	荒政要覽	三關志	
	泉源考	經賦冊	
	潞水客談		
雜部	素問	醫統	20종
	本草	脉經	
	許氏說文	爾雅翼	
	稗雅	廣雅	
	小爾雅	焦氏易林	
	括地志	萬姓統譜	
	古今姓纂	顏氏家訓	
	藍田呂氏鄉約	鶴林玉露	
	文心雕龍	三才圖要	
	廣輿記	儒門事親	
類書部	初學記	太平御覽	15종
	唐類函	天中記	
	文獻通考	讀文獻通考	
	丹鉛總錄	丹鉛續錄	
	玉海	杜氏通典	
	北堂書鈔	冊府元龜	
	山堂考索	百川學海	
	焦氏類林		
合計	256종		



⑥ 명 공학서원의 장서

區分	書名	소계
(經)	易經註疏 5      書經註疏 8	13종
	詩經註疏 17      春秋註疏 20	
	禮記註疏 20      周禮註疏 16	
	儀禮註疏 12      孝經註疏 1	
	論語註疏 4      孟子註疏 7	
	公羊註疏 10      穀梁註疏 6	
	爾雅註疏 4	
(史)	史記 30      前漢書 32	19종
	後漢書 28      三國志 16	
	晉書 40      宋書 30	
	魏書 40      南史 20	
	北史 30      唐書 50	
	北齊書 8      南齊書 12	
	周書 10      梁書 12	
	陳書 6      宋史 100	
	遼史 12      金史 28	
	元史 50	
(子集)	龜山文集 6      延平答問 2	10종
	四先生語錄 4      朱夫子答問 1	
	易經疑問 6      書經疑問 4	
	詩經疑問 4      春秋疑問 6	
	南阜語義 4      梔史 4	
合計	42종	

㉠ 조선 백운동서원의 장서(『竹溪志』)

區分	書名		소계
(經部)	周易大全 14卷		22종, 2건 모두 합하면 195책
	詩大全 9卷	詩大文 2卷	
	書大全 14卷	書諺吐 8卷	
	書大文 1권		
	春秋附錄大全 17卷	左傳大全 22卷	
	春秋胡傳大全 7卷	春秋胡傳小全 4卷	
	禮記大全 16卷	禮記唐板小全 10卷	
	周禮 7卷		
	中庸 1部	大學 1部	
	中庸或問 1部	論語大全 2件 各7卷	
	孟子大全 2件 各7卷	孟子大文 2卷	
	大學衍義 12卷		
(史部)	小學 2件 各4卷	韻府群玉 10卷	5종, 78책
	宋鑑 16卷	通鑑 15卷	
	東國通鑑 29卷		
(子部)	伊洛淵源錄 2卷	名臣言行錄 16卷	8종, 2건 모두 합하면 184책
	近思錄 2건 4卷	自警編7卷	
	眞西山心經 2卷	朱子語類 59卷	
	性理大全 36卷	朱子大全 70卷	
(集部)	博物志 1卷	續博物志 1卷	8종, 73책
	文選 15卷	楚辭 2卷	
	文章軌範 2卷	儷語編錄 20卷	
	韓昌黎集 16卷	柳子厚集 13卷	
	樊川集 4卷	完陵集 1卷	
合計	43種503 (500권+3부), 2건을 모두 합하면 525책		

⑩ 조선 영봉서원의 장서(『迎鳳志』)

區分	書名		소계
(經部)	周易大全 14卷	(周易大全)大文 1卷	20종
	書大全 3件 10卷	(書大全)大文 2卷	
	詩大全 10卷	(詩大全)大文 2卷	
	春秋左傳 25卷	春秋附錄 17卷	
	春秋胡傳 2件 7卷	—	
	禮記大文 6卷	—	
	中庸 2部	大學 1部	
	或問大學 2部	論語大全 9卷	
	(論語大全)大文 1卷	孟子大全 7卷	
	小學集解 3卷	韻府群玉 11卷	
(史部)	韻會 13卷	大廣益會 3卷	7종
	宋鑑 16卷	元史節要 2卷	
	後漢書 46卷	通鑑 14卷	
	十九史畧 8卷	—	
	淵源錄 2卷	—	
(子部)	陸宣公奏議 7卷	—	10종
	近思錄 4卷	性理字義 1卷	
	自警編 5卷	理學類編 2卷	
	性理大全 2件 25卷	心經付註 1卷	
	三綱行實 1卷	續三綱 1卷	
	博物志 1卷	—	
(集部)	活人心方 1卷	—	18종
	古文真寶 7卷	東文選 46卷	
	古文選 17卷	文章軌範 2卷	
	文章歐治 1卷	三韓詩龜鑑 1卷	
	朝鮮賦 1卷	唐音詩集 3卷	
	東坡詩集 14卷	昌黎集 15卷	
	柳文 13卷	晦庵詩集 2卷	
	樊川 4卷	蘇詩摘律 2卷	
	靖節先生集 1卷	訥齋集 2卷	
合計	遺山樂府 1卷	成廟御書 1卷	55종 464卷 5部



# 서원의 교류와 유식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인-노론계의 首書院 돈암서원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돈암서원의 역사를 그 위상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면, 서원 건립의 시초가 되는 1602년 양성당에서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형성기, 그리고 1634년 ‘사계서원’의 창건부터 1658년 김집의 종향 후 1659년 ‘돈암서원’으로 사액되기까지의 시기, 이후 당쟁기 서인계의 대표 서원의 위상을 유지하다 서인의 노소분기 후 노론의 수원(首院)으로 기능하는 시기, 우암 송시열 사후 송시열을 상징하는 화양서원이 1696년 사액된 후 사실상 노론의 거점이 되면서 노론의 수원이란 상징성이 약화되기까지의 시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원 건립 초기 연산지역 광산김씨의 기반 형성, 사액 후 서원 출입 인사들의 변화 및 정계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인사들의 활동 상황을 교류와 유식(遊息)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여 살피고자 한다.

## 1. 광산김씨의 연산지역 세거 과정

돈암서원의 시작은 충청도 연산(連山)에서 이루어진 김장생 김집 부자의 강학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집안이 연산에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된 것은 조선초 태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산김씨의 연산 입향조는 김약채라 전해진다. 고려때 개경 주변에서 거주하다 김약채가 충청도관찰출척사를 역임하면서 입향한 이래 조선후기까지 계속해서 직계 장손계열의 후손이 연산 고정리 일대에 세거하였다.

광산김씨 족보에는 김약채가 충청도관찰출척사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고 공산지(公山誌) 도선생안(道先生案)에도 김약채의 이름이 올라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 4년(1404) 3월에 충청도관찰사에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김약채의 셋째아들 김한(金閑)의 장자 김유돈(金有敦)은 1414년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김여지(金汝知)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하므로 이 무렵에 연산에 거주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김약채 이전에 광산김씨가 충청도와 인연을 맺는 기록이 족보에 남아있다. 즉, 김약채의 5촌 숙부 김인우(金仁雨)는 공민왕때 홍건적의 난에 공을 세운 인물로, 전의이씨 이도손(李道孫)의 딸과 혼인하였고, 인우의 둘째아들인 김태길(金泰吉)의 묘가 ‘연산 거정리(居正里)’에 있다는 기록(훗날 실전하여 장성에 설단하였다고 함.)이 최초로 보이는 연산 관련 기록이다. 따라서 김약채가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해오기 이전에 이미 연산에 광산김씨의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산김씨 김치기(金趾其)가 여산송씨 송전의 사위인 민심언(閔審言)의 사위가 되어 공주(현재의 대전시 유성)에 자리잡게 된 것도 연산 입향의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김약채의 첫째아들 김문(金問)이 양천허씨 허응(許應)의 딸과 혼인한 이후 아들 김철산(金鐵山)을 남기고 일찍 죽자 부인 허씨가 철산을 데리고 연산 시택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김문과 허씨의 관련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실록에서 찾아진다. 허응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개성윤 허교(許喬)의 아들로 조선이 개국된 뒤 여러 요직을 거쳐 태종초에는 대사헌이 되어 배불정책을 주장하였고, 부녀의 정절을 중시하여 과부의 개가를

금지하자고 주장한 인물이다. 실록에 의하면, 허응은 태종 12년에 고(故) 전서(典書) 박침의 아들인 박저생(朴抵生)이 가산(家産)의 분재문제로 모친과 송사를 벌이다 자살한 사건에 연루되어 연산으로 유배되었는데, 아마도 이 때에 딸과 사돈 집안이 있는 연산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산김씨가 연산에 본격적으로 세거하게 된 것은 바로 철산의 아들 김국광(金國光, 1415 ~ 1480)대에서 부터였다. 김철산 이전까지는 춘천 양주 등지에 묘역이 있었으나 김철산의 묘소가 연산에 마련된 후 대를 이어 연산지역 일대에 광김의 묘소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산은 안동김씨 김명리(金明理)의 딸과 혼인하여 국광, 겸광, 정광, 경광 형제를 낳았는데, 이중에 특히 국광은 세조의 총애를 받아 정충출기적개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精忠出氣敵愾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책봉되는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국광은 장수황씨 황희의 아들인 황보신(黃保身)의 딸과 혼인하였다. 황보신은 축재와 뇌물수수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로, 그 재력은 딸과 사위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국광의 유서가 남아있는 왕대리 부근은 고려시대 광서부곡(廣炤部曲)의 터로서, 집안의 경제적 기반으로 더할나위 없이 알맞은 입지조건이었을 것이다. 실록에 기록된 김국광의 졸기 중 사신의 논평에는, “오랫동안 무선(武選)을 관장하니, 문정(門庭)이 저자(市)와 같았고, 집안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다.<sup>1)</sup> 이렇게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루 갖추면서 연산의 광산김씨는 주변지역으로 점차 세거지를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 2. 교류의 현장, 아한정(양성당)과 정회당

이른바 ‘기호사림의 종장’이라 칭해지는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부자는 연산의 광산김씨이다. 조선 유학사상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으니 훗날 율곡 이이의 문인들에게서 시작된 ‘기호학파’와 퇴계 이황의 ‘영남학파’로 대표된다. 이중 기호학파의 종장(宗匠)이 바로 연산 출신의 김장생과 김집 부자였고 역대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다. 우암 송시열이 손꼽은 호서 3대 거족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산김씨의 유허가 남아있는 지역은 연산면 임리와 고정리, 두마면 두계리 왕대리 등지이다. 입향 초기에는 고정리와 임리에 거주하고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 두계리와 왕대리에도 세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의 다른 사족과 달리 세거지의 확산 과정이 매우 빨랐는데 그것은 자손 대대로 고위 관직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율곡 이이의 학맥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계 김장생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기호지역 일대의 사족들이 모여들어 학문의 장을 만들고, 그가 별세한 후에는 그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는 등 연산의 임리 일대는 조선후기까지 기호유학의 센터로 기능하였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돈암서원(遯巖書院)’이다

1) 『성종실록』권123 11년 11월 11일 정해조.





<사진> 돈암서원 내 정회당 현판



<사진> 연산천변 돈암 바위

돈암서원이 창건되기까지 그 실마리가 되었던 곳은 바로 양성당(養性堂)과 정회당(靜會堂)이다. 광산김씨는 연산천 하류로 내려가는 임리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는데, 마을 앞에 연산천 변에는 ‘돈암’이란 바위가 있었다. 이 근처에는 있던 최청강(崔淸江)의 별업(別業)인 아한정(雅閑亭)은 김국광 신숙주 등 당대의 명신들이 교유하며 머물던 장소였다. 최청강은 말년에 죄를 지어 관노가 되었고, 아한정은 김장생의 백조부인 김석(金錫)이 사들였다. 김석에게는 아들이 없어, 김장생의 숙부인 김은휘(金殷輝)를 양자로 들였고, 어린 김장생은 아한정에서 공부하며 학문을 익혔다. 이 시기의 제영은 김은휘(1541~1611), 송익필(1534~1599)의 것이 있는데, 이것은 김은휘가 정지운 문하에서 수업하고 송익필과 교류할 때 지은 것이다. 김은휘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향과 형 계휘의 교우 관계에 힘입어 아한정을 중심으로 연산 지방의 사족들과 교류하며 지냈고, 아한정이 서재로서 제 기능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소유가 되면서 부터로 보인다.

김장생이 지은 양성당기(養性堂記)<sup>2)</sup>를 보면 아한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정자 주위를 둘러싼 숲과 맑게 흐르는 시내, 연못에 가득 핀 붉고 하얀 연꽃, 물가를 따라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와 각종 과실수, 그리고 멀리 바라보이는 계룡산 산등성이의 우람한 모습은 이곳에 앉아 수양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이어지며 1597년 연산현에 왜군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아한정도 불 타 버리고 말았다.

#### 양성당기(養性堂記), 김장생

돈암(遯巖) 숲 속에 옛 정자가 있는데, 편액을 아한당(雅閑堂)이라 하였다. 본디 세조(世祖) 때 문사(文士) 최청강(崔淸江)의 별장이었는데, 후일 우리 백조부(伯祖父) 서윤(庶尹) 휘(諱) 석(錫)이 이를 소유하였고, 내가 뒤이어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

뒤에는 작은 산이 둘러 있고 산 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앞에는 길게 뻗어 있는 숲이 있고 숲 밖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하얀 모래가 맑고 아름다우며 시냇물은 배가 떠다닐 정도로 깊다. 또한 뒤쪽 시내에는 암석 사이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 갯끈을 씻을 만하다. 이 물줄기를 끌어다가 위아래 연못을 만들어 붉은 연꽃과 하얀 연꽃을 심었다. 또한 복사꽃 핀 시내와 버들가지 늘어진 물가를 따라

2) 사계전서 제5권, 기(記)

잔디가 덮인 제방은 수백 보나 되며,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닥나무, 옷나무, 뽕나무, 산뽕나무들이 좌우로 둘러싸여 있다.

멀리 보이는 산세(山勢)로는 대둔산(大屯山)이 그 남쪽에 있고 계룡산(鷄龍山)이 그 북쪽에 높이 솟아 산봉우리들이 우람하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들며, 교외(郊外)에는 척박한 밭 몇 이랑이 있다. 만일 어린 종을 시켜 그곳에서 힘껏 농사짓게 하면 미음과 죽을 먹기에는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조정의 벼슬에 얹매어 세속 일에 시달리느라 하루도 고요히 함양(涵養)한 공부가 없어서 후회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아득하기만 하여 얼마간의 세월을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도 없다. 만일 일찍이 벼슬하기 이전에 이곳을 찾아 우러러 산을 즐기고 굽어 물을 보면서 사물을 관찰하여 이치를 깨닫고서 무뎠어 한가로이 보냈다면 반드시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에 도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자에는 옛적에 판각하여 걸어 놓은 시(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정승공(政丞公)이 쓴 시이다. 나는 일찍이 그곳에서 시를 읊으면서 다시 여러 명작(名作)들을 찾아 그 뒤를 이어 시를 쓰려고 하였는데, 임진왜란으로 정자와 함께 모두 불타 버렸다.

요즈음 앉으나 서나 슬픈 마음이 들기에 옛터에 작은 집을 지어 다시 여러 사람들의 시를 새겨 놓고 때때로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달래었다. 또 당호를 양성당(養性堂)으로 고쳐 당세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하고자 한다.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에 정인홍(鄭仁弘) 일파의 횡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연산에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이 바빠 사느라 마음 공부가 미진했던 것을 아쉬워하며, 불 타 사라진 아한정 터에 돌아와 다시 집을 지었다. 이곳에서 문인들과 어울리며 강학하고 시를 읊었으니, 이 양성당이 바로 돈암서원의 시초였다.

김장생은 아한정 시절의 제영을 다시 판각하여 걸어 놓고 당대의 시인들에게 화운(和韻)을 구하였다. 김장생이 구한 시집(詩什)은 김상용(선조 34, 1601), 정엽(선조 36, 1603), 조익(선조 37, 1604), 소광진(선조 37, 1604), 송간(松澗; 선조 37, 1604)<sup>3)</sup>, 심광세(선조 38, 1605), 홍천경, 신희(선조 39, 1606), 황혁, 임숙영(광해군 4, 1622), 권진기(광해군 15, 1623), 김상헌(인조 6, 1628), 이정구(인조 7, 1629), 장유(인조 7, 1629), 정홍명(인조 7, 1629), 김지남[1603(선조 36), 1629(인조 7)], 양경우(인조 8, 1630)의 것으로 그와 동문수학한 친구나 그의 문인들이 지은 것이다. 이들이 시를 지은 연대를 보면, 이들은 양성당 건립 후부터 김장생이 별세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드나들며 우의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인의 중진들로서, 양성당이란 공간에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 후에 김장생의 막내 아들 김비(金斐 1613~?)가 이 작품들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글을 모아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이라는 책을 내었고 송시열(宋時烈 1607~1687)이 발문을 적었다.

또한 성혼의 문인이란 혐의로 좌천되어 종성에 가 있던 정엽(鄭曄, 1563~1625)에게 자신이 지은 양성당기를 보내고 기문을 부탁해 1603년 정엽이 지은 양성당기를 받았다. 양성당에는 이 두 개의 양성당 기문이 함께 걸려있었다.

3) 송간이란 호를 쓰는 인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양성당에는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이 김장생에게 학문을 배웠고, 김장생이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약 30여년간 양성당에서는 끊임없는 강학이 이루어졌다. 1631년 김장생이 타계하자, 제자들은 곧 사우 건립을 논의하였고, 1633년 사우를 준공한 후 이듬해 김장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사우의 상량문은 김상헌이 짓고, 봉안문은 정홍명이 지었다. 당시의 서원 명칭은 ‘사계서원’이었다.

한편, 김장생의 아버지인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1557년(명종 12)에 연산에 은거하며 고운사(高雲寺)를 빌려 ‘정회당’이란 편액을 걸고 이곳에서 연산의 유생들을 가르쳤다. 훗날 효종임금이 고운사의 절터를 신독재 김집에게 하사하면서 이 자리는 광산김씨의 묘역이 조성된 종산이 되었다.

돈암서원에는 양성당과 정회당의 현판이 그대로 남아 전한다.

### 3. 서원 창건과 사액의 주역

조선후기 정조대까지 세워진 충청지역의 서원은 총 105개소 가량이 확인된다. 서원 관련 기록인 서원지(書院, 1799),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서원가고(書院可攷),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조두록(俎豆錄),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 湖西), 전고대방(典故大方) 등에 등재된 서원의 숫자이며, 이중 유독 서원지(1799)에만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2개소의 서원이 있는데 이는 기존 서원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 105개소의 서원을 분석해보면 영남계로 볼 수 있는 퇴계 이황 및 그 문인을 제향하는 곳이 11개소, 그리고 서인의 노소분기 이후 소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11개소이다. 총 22개소의 서원을 제외하면 충청지역의 서원은 주로 서인-노론계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돈암서원은 최초 창건시 서인계가 결집하여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32년(인조 10)에 출문유사(出文有司)와 열읍유사(列邑有司)의 주도로 충청도 20개 군현 사림(士林)들이 창건을 발의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출문유사는 현직 6인, 전직관료 9인, 유학(幼學) 4인, 생원 4인으로 민후건, 김동준, 이항길, 김정망, 송준길, 송시열, 유지하, 김자건, 송시열, 김곤보, 이유태 등 문인들로 구성되었다. 재원을 조달하는 열읍유사는 공주목, 청주목, 홍주목 산하의 20개 지방 유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의 학문을 계승한 이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출문유사와 열읍유사는 사우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하여 전국 각 읍의 관리, 향교, 서원, 사림 등에게 통문을 보냈고 이 때 참가한 유생들은 28개 지역 155명으로 지역별로는 연산·이산·회덕·공주·은진·익산·전주·여산지역 유생들이 다수였다. 이들 지역은 김장생이 지방관으로 재직하거나 강학활동, 의병활동을 벌인 곳, 또는 문인의 거주지였다.

돈암서원의 창건 후 서원은 이른바 호서사림의 종장을 제향한 곳으로 정치적으로는 서인계의 거점 서원이 되었지만 사액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연산에 사는 진사 윤석(尹皙) 등이 1658년(효종 9)에 사액을 청하여 그 이듬해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것은 김장생을 주향이나 독향으로 모신 다른 서원들 보다도 더 오래 걸린 것이다. 그 이유는 서원이 창건된 후 30여년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1634년(인조 14) 병자호란,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 모반사건, 1645년(인조 23) 강빈옥사(姜嬪獄事), 1646년(인조 24) 유탁(柳濯)·권대용(權大用) 등의 모반사건 등 나라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 정국이 불안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탁·권대용의 출신지인 연산·이산·

은진 지역은 혁파되어 은산(恩山)으로 통합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야 원래의 세 현(縣)으로 복구되었다. 이 시기에 인근 이산 지역 또한 윤선거를 제향하는 서원(노강서원)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돈암서원 원생들은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액(賜額)을 청하지 못하다가 연산이 현(縣)으로 복구되자 바로 사액을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 이 시기는 송시열, 송준길 등이 중앙정계를 주도하고 임금과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선택요청이 곧 받아들여졌다. 1660년(현종 1)에는 익산 유학 이광저(李光著)가 상소를 올려 재사액을 청하였는데, 조정은 “이미 선조(先祖 ; 효종)에 선택(宣額)하였으므로 첩시(疊施)할 수 없으나, 많은 선비들이 청하기 때문에 특별히 첩시하여 준다”하면서 사액을 허락하였다. 김장생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해 정계를 주도하던 시기였으므로 두 차례의 선택이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 4. 서인의 노소분기와 서원 출입 인사의 변화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을 제향하며 창건하였고, 1659년(효종 10)에는 신독재 김집을 봉안하였다. 김집은 김장생의 차남으로, 부친의 학문을 이어받아 김장생의 문인들이 그대로 김집을 섬겼다고 한다. 김집이 별세하자 곧 사당에 배향하였다. 김집의 봉안문은 제자 시남 유계가 지었고, 봉안시 참여 유생은 50개 지역 282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적 규모는 이 시기 돈암서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김장생 문인들의 재지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김장생의 고제자(高弟子)이며 기호학파의 적전인 송준길, 송시열을 추향하였다. 송준길은 1688년(숙종 14)에 유학 홍우안(洪友顔)이 ‘근래 서원을 남설하는 폐단이 많지만 지금 송준길을 돈암서원에 배향하는 것은 구사(舊祠)에 추입(追入)하는 것으로 첩설(疊設)과 다름’을 강조하면서 배향을 요청하여 추향되었다. 송준길 봉안시 18개 군현에서 177명이 참가하였다. 177명 가운데 연산 거주 유생 102명, 니산 거주 유생 22명, 은진 거주 유생 18명이 참가하였다. 우암 송시열의 추향은 송시열이 사사(賜死) 5년 후 1694년(숙종 20) 연산 유생 윤재(尹載)가 배향을 요구하는 소(疏)를 올려 그 이듬해 이루어졌다. 송시열 봉안시 21개 군현 160명이 참가하였고, 연산 거주 유생 37명, 은진 거주 유생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배향을 청하는 상소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옛 사우에 추배하는 것이 지 첩설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당시 서원 건립이 증가하면서 남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봉안시에 참가한 유생들 중 연산 거주자가 편중되고 송시열 봉안시에는 니산(尼山) 지역 유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던 것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는 상황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김집의 제자 중 한사람인 윤선거의 추배도 시도되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서원의 원생들은 태학(太學)에 통문하여 윤선거 추배를 건의하였는데 김장생의 현손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윤선거는 당시 니산의 노강서원에 이미 제향되고 있었으므로 연산의 광산김씨가에서는 가까운 니산의 파평윤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선거의 아들 명재 윤증은 돈암서원에 소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소론의 상징 서원인 니산 노강서원에서도 이 시기 비슷한 현상이 보이는데, 노강서원 창건시에 참여했던 지역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며, 연산지역 사족은 보이지 않고 주로 니산 사람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 5. 돈암서원의 이건

돈암서원이 자리한 임리에는 연산천이 흐르는데 연산천으로 합수되는 물줄기들이 큰 홍수 이후에는 물길이 변하곤 하여 서원의 침수 문제가 있었다. 송병선(宋秉璿)이 지은 돈암서원 이건비(遯巖書院移建碑)에 의하면

“그러나 연대가 오래 지남에 따라 산천이 바뀌어졌는바, 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림(士林)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금상(今上) 경진년(1880, 고종17)에 다시금 거기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호계(虎溪)의 언덕에 터를 잡아 새로 지었는데, 이곳 역시 선생이 예전에 오가던 곳이다. 이에 오직 응도당(凝道堂)만 홀로 옛 터에 서 있게 되어 우뚝한 그 모습이 마치 노(魯)나라의 영광전(靈光殿)과 같은데, 특별히 양성당(養性堂)이라고 쓴 옛 편액이 걸려 있으며, 비석 역시 그 앞에 우뚝이 서 있다.”

라고 하여, 서원 담장까지 홍수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결국 1880년 호계 언덕으로 이건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우, 외사, 내사만 옮기고 응도당과 비석은 그대로 둔 채 응도당에 양성당의 편액을 걸어두었다. 1880년 이건시 옛 규모를 그대로 따랐지만, 거경재와 정의재는 새로 세우지 못하고 편액만 강당(講堂)의 좌우 협실(夾室)에 걸었으며, 산양루(山仰樓) 역시 짓지 못하고서 그 편액만 내사(內舍)의 대청 문 위에 걸었다.

이 시기 이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기의 양안과 서원 도지기 등을 살펴보면 서원 유사의 주도로 서원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환하여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 이건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응도당은 1971년에 현 위치로 이건되었고, 1997년에 양성당 앞으로 동재와 서재를 세우고 각각 정의재와 거경재 현판을 걸었으며, 2000년대에 산양루가 건립되었다. 산양루는 돈암서원의 유식(遊息)의 공간을 상징한다. ‘산양루’란 이름은 《시경》〈거할(車輦)〉에, “높은 산처럼 우러르고 큰길처럼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송준길은 ‘고산을 우러러본다[高山仰止]’라는 넉자를 남겨서 송시열을 종신토록 존경한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